

蔚州 雲興寺의 佛經刊行에 관한 研究*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by Unheung-sa

裴賢淑 (Pae, Hyon-Suk)**

◁ 목 차 ▷

1. 緒言	4.1 發願者
2. 雲興寺의 佛經刊行	4.2 施主
2.1 雲興寺의 沿革	4.3 緣化僧
2.2 雲興寺의 佛經刊行	5. 印本의 特徵
3. 傳來 板木과 特徵	6. 結言
4. 板刻의 發願 및 功役	<참고문헌>

< 초 록 >

17세기 후반 울산 운흥사에서는 많은 불경을 간행하였다. 이 시기는 왜란과 호란이 끝나고 안정기에 접어들어 시점으로 문화적인 활동을 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목판으로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판각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우선 인적인 요소로 불경을 간행하고자 하는 발원자와 주관자,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시주, 출판에 필요한 능숙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 이 삼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판각용의 판목과 인출할 종이 등 여러 물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시 운흥사에는 이들 조건을 모두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15종의 불경과 2종의 판화를 판각하고 인출할 수 있었다.

발원자와 주관자는 서적 권말에 수록된 경우도 있고, 발문에 수록된 경우도 있다. 다수의 서적 판각에 발원한 스님은 學薰과 演熙였다. 권말에는 시주도 밝히고 있는데, 속인과 스님을 합해 모두 59명으로 집계된다. 대표적 속인 대시주는 金士男, 李終山, 李鶴春 등이다. 이 가운데 李終山은 자신의 이름,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의로도 시주하였다. 승가의 대시주는 雪眞, 彥明, 靈寬, 天心, 太圭, 學琳 비구 등이다. 이외에도 난외에 소액을 시주한 사람들의 인명이 새겨져 있는데, 모두 1,500명에 달한다.

다양한 기술자가 동원되었는데, 대표적인 장인은 각수이다. 각수는 모두 41명 이상 동원되었다. 원담(元淡)과 연희(演熙)가 가장 능숙한 각수였다. 연희는 모두 15종 서적 판각에 참여하여 덕유산에서 목재를 구해오고, 연판하고, 판각한 각수이다. 상당수의 서적에 粧頭刻手로도 활동하였다. 운흥사의 각수들 가운데 연희(演熙), 원담(元淡), 영찬(靈贊), 이택(已擇), 평흥(平屹), 능신(能信)은 판면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기 때문에 이를 통해 그들의 판각기술을 엿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계명문화대학의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임.

** 계명문화대학 서지학전공 교수(hspae1977@empal.com)

접수일: 2009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9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7일

고종초 이전에 사찰은 폐사되었으나 수장하고 있던 판목은 통도사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다. 전래되고 있는 판목은 모두 673판이다. 그러나 이들 책판은 영조 이후의 책판목록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오늘의 우리는 그 판목과 인본을 통해 당시의 운흥사의 판각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要語: 운흥사, 발원, 시주, 각수, 학훈, 연희

<ABSTRACT>

In the late 17th century Unheung-sa in Ulsan published at its prime 15 titles of Buddhist scriptures and 2 titles of woodcut prints(illustrations of the Buddhist). In the early 19th century Unheung-sa was ruined, but no one knows exactly when, why or how. 673 woodblocks kept in Unheung-sa were relocated to Tongdo-sa. However those woodblocks were not listed on the catalogs of woodblocks compiled afterward.

Prerequisites for xylography were human factors and materials. Human factors include planners, organizers, financial benefactors and technically skilled experts to publish scripts. Furthermore, many kinds of materials, including woodblocks to carve and papers to print, had to be easily supplied. In those days, Unheung-sa satisfied all those requirements.

The prime organizers and planners were noted either at the end of the volumes or postscripts. Monks Haghun(학훈) and Yeonheui(연희) were the head planners of many titles. Benefactors, organizers and technical experts were also mentioned at the end of the volume. There were a total of 59 benefactors who were either laymen or monks. Among the secular benefactors, Kim Sanam(김사남), Yi Jongsan(이종산), Yi Hagchun(이학춘) were the donators of the largest amount of money. Yi Jongsan(이종산) donated not only in his own name but also in the names of the deceased parents. About 1,500 people who donated only small sums of money were also listed on the margins of books.

Among technical experts, the most important were the xylographer. Among the 41 xylographers recruited, Wondam(원담) and Yeonheui(연희) were the most skilled. Yeonheui(연희) produced and participated in the engraving of 15 titles. He got the wood from Mt. Deokyu(덕유산), trimmed and engraved the text and illustrations. Six xylographers, including Yeonheui(연희), Wondam(원담), Youngchan(영찬), Yitae(이택), Pyeongheul(평흠) and Neungsin(능신), left their names on the margins of the woodblocks so that we could infer their engraving skills.

Although the woodblocks produced at Unheung-sa were not listed on the catalogs of woodblocks compiled since the reign of King Yeongjo, we can figure out the conditions of xylograph at Unheung-sa through the woodblocks and their prints currently kept at Tongdo-sa.

Key words: Unheung-sa, planner, benefactor, xylographer, Haghun, Yeonheui

1. 緒 言

조선은 송유역불을 국시로 하였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사찰에서 대규모로 불경을 판각하는 것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불심은 그렇게 손쉽게 바뀔 수는 없었다. 민중은 여전히 사찰을 찾았고 시주하여 많은 불경을 간행하였다. 사찰에서 불경을 간행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불교의 연구와 포교는 물론 신도들이 功德을 쌓고 先亡父母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것이었다. 주로 불교 경전, 불교신앙 및 의식에 필요한 서적, 고승의 저술이 간행되었다.

임진왜란 이전에 불서를 開板한 사찰은 163개소로 530여종을 판각한 것으로 집계되었고,¹⁾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는 사찰판의 서책을 집계한 기록으로 모두 950종을 언급하기도 한다.²⁾ 사찰판의 간행은 불서를 간행하고자 발원하고 주관한 승려, 이에 施財함으로써 개인의 공덕과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려는 신도와 승려, 판각, 인출, 장황과 관련된 분야 장인의 힘이 모아졌을 때 가능하다.

上求菩提下化衆生해야하는 승려는 물론 불도를 깨닫고 내세에 極樂往生하기를 기원하는 신도에게 있어, 불사에 시주로 참여하는 것은 무상의 공덕을 쌓고 行願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개판에 참여한 緣化秩, 工役秩과 施主秩을 수록하는 것은 波羅蜜의 실천행을 나타내고, 나아가 이를 권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波羅蜜의 실천행은 요즘 개념으로는 壽附行爲인 것이다. 심지어 본문 여백에도 시주와 공덕각수를 수록해두었다. 이들 기록은 사찰판의 개판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여한 인물의 성격과 활동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일차적 자료이며 판본의 간행사황을 고증하는 식별요소가 된다.³⁾ 이는 곧 사찰판의 간행이 발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등재본의 필사, 교정, 연판, 각자, 인출, 장책에 이르기까지 사찰 스스로의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전국 각지의 사찰에는 여러 예술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승려가 많았

1) 金致雨, “壬亂以前 地方刊本の 開板處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16輯(1998. 12). 47.

2)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7). 46.

3) 金相溟,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3.

다. 불상 畫師도 相畫, 影畫, 藏畫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불상 조각승은 淸憲, 勝一, 應惠, 無染, 印均 등이 알려져 있다.⁴⁾ 조선 후기에 활동한 화사로는 明玉, 應悅, 信謙, 學能, 尙謙, 雪訓, 永煖, 若效, 天信, 義謙, 賢正, 天如, 義均, 世冠, 有謙, 信敏, 任閑, 偉祥, 喆侑, 石翁, 竺演, 色敏(嗇旻, 色旻) 등이 유과를 이루면서 활동한 것이 알려지고 있다.⁵⁾ 조선시대에 활동한 책판의 각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연구된 바 있다.⁶⁾ 그러나 특정 각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판목들은 전란으로 유실되거나 시간의 경과로 朽廢되어 현존하는 목판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렇지만 운흥사는 조선 후기 경상도에서 해인사 다음으로 판각활동을 활발하게 벌린 사찰이며, 또한 그 책판이 300-350년이 지난 현재까지 통도사에 보관돼 있다는 점에서 운흥사는 주목할 수 있다. 운흥사 목판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현종 9(1668)년에 개판된 『恩重經』이며, 가장 늦게 개판된 것은 숙종 35(1709)년에 개판된 『慕雲大老行蹟』이다. 또한 상당수의 인본도 전래되고 있다. 이들 판목에 대해 1980년대와 2001년에 조사된 바 있다. 이들 운흥사에서 간행한 불경을 통해 당시에 활동한 장인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장인이 판각한 작품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본고에서는 운흥사의 판목에 대해 연구하여 당시에 참여한 승려, 시주, 장인에 대해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사찰에서 행한 목판 개판상황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4) 孫永文, “彫刻僧 印均派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호(2006), 53-82.
손영문, “彫刻僧 應惠派 佛像彫刻의 研究,” 『한국불교문화학회총계학술회의논문집』 (2007. 3), 83-93.
 - 5) 安貴淑, “朝鮮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研究,” 『미술사연구』 제8-9집 (1994-1995). 63-136), 153-201.
김장균, “백양사 불화의 불교회화사적 의의,” 『한국불교문화학회총계학술회의논문집』 (2007. 3), 95-101.
 - 6) 金相溟,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2. 雲興寺의 佛經 刊行

2.1 雲興寺의 沿革

조선후기에 번창했던 雲興寺는 폐사되어 그 寺址는 양산시와 울주구의 경계에 있는 鼎足山(해발 700.1m)의 오른편 골짜기 해발 약 300m 능선에 있다. 운흥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구 웅촌면 고연리 반계부락의 서쪽 운흥계곡에 있었던 울산의 최대사찰이었다.

운흥사는 신라 제26대 眞平王(579-631)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⁷⁾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창건연대를 진평왕 때로 본다면 元曉大師의 출가연대와 어긋나게 된다. 원효대사는 진평왕 39(617)년에 태어나 신문왕 6(686)년에 별세한 것을 감안하면 문무왕 혹은 신문왕때 창건했다는 것이 조금 더 창건시기와 가까울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다수 전통사찰의 창건주가 元曉, 아니면 義湘, 慈藏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雲興寺址 발굴 조사에서 신라통일 말기로 추정되는 연화문수막새, 보상화문수막새, 당초문암막새를 비롯한 기와류를 수습하였으므로, 운흥사는 신라 통일기에 는 기반이 마련됐던 것으로 보인다. 磁器類도 발굴되었는데, 청자접시가 11세기, 청자잔탁이 12세기, 청자화형접시가 13세기, 청자상감여의두문접시가 14세기로 추정되므로, 청자류를 통하여 고려시대에도 매우 활발한 불사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⁸⁾

조선시대의 유물은 16세기의 명문이 있는 암막새, 임진왜란 이전의 기와명문, 임진왜란 이후의 기와명문과 석조명문, 15세기의 분청접시, 16세기 접시, 17세기 대접, 19세기로 추정되는 석간주각병과 같은 백자류이다. 사적지에 산재해있는 석조물의 연대는 주로 청나라 雍正과 乾隆으로 기록되어 있다.⁹⁾ 또한 판목의

7) 李升默 編, 蔚山邑誌. 木活字本. [光武 6(1902)]. 卷 1. 佛宇. 張 25.

金佑植編, 蔚山邑誌. 寫本. [光武 6(1902)] 張37 (奎11699).

8)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雲興寺址發掘調查報告書』(昌原: 예맥출판사, 2003). 183-4.

9)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雲興寺址發掘調查報告書』(昌原: 예맥출판사, 2003). 183-4.

관각년대는 현종 9(1668)년부터 숙종 35(1709)년까지이므로 조선시대의 전성기는 현종년간부터 영조년간으로 보인다.

이렇게 번창했던 운흥사의 폐사년대는 분명치 않다. 현재 잔존하는 洗塵橋의 명문¹⁰⁾을 통해 철종년간까지는 운흥사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종 8(1871)년에 편찬된 『嶺南邑誌』와 고종 10(1873)년에 편찬된 『嶠南誌』에는 현재는 없다¹¹⁾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종 32(1895)년에 편찬된 『嶺南邑誌』¹²⁾에 사명조차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잊힌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폐사시기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사찰은 남아 있지 않지만 통도사에 버금가는 대찰이었던 운흥사는 한 때 2만여평의 경내에 59개 암자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1천명의 승려들이 여기서 수도했다고 전해진다.¹³⁾ 그러나 정조 이후 어느 시점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2.2 雲興寺의 佛經刊行

조선초부터 승유억불책을 시행하여 불서간행을 위한 여건은 전조 고려에 비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국각지의 사찰에서 불서를 간행해왔는데, 대개 기존 불경을 번각하거나 스님의 문집을 간행했다. 전국적으로 16세기에 불서를 가장 많이 판각¹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경상도 지방의 불서 간행은 15세기(34종), 16세기(81종), 17세기(145종), 18세기(102종), 19세기(29종), 20세기초(15종)인 것으로 보아 17·18세기에 성행된 것으로 보인다.¹⁵⁾ 다른 지역보다 1세기

10) 金正浩, 『大東地誌』, 影印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6). 153.

11) 『韓國地理志叢書』, 影印本 (서울: 아세아출판사, 198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2. 蔚山邑誌 (奎12173). 책 20. 439.

『韓國近代道誌』, 影印本 (서울: 韓國人文科學院, 1991). 嶠南誌 권44. 책 23. 85.

12) 『韓國地理志叢書』, 影印本 (서울: 아세아출판사, 1987). 嶺南邑誌 (奎12174). 책2. 452.

13)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雲興寺址發掘調查報告書』 (昌原: 예맥출판사, 2003). 184.

14)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7). 54.

15) 南權熙,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敎書籍에 관한 研究,” 『韓國書誌學論集』 (한국서지학회, 1999).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雲興寺址發掘調查報告書』 (昌原: 예맥출판사, 2003). 184.

정도 낮은 것은 지역적으로 임진왜란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찰에서는 특정시기에 서적을 집중적으로 판각한 경향을 나타낸다. 특정시기에 한정된 것은 특별한 동기나 목적, 특정인물의 각별한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개 사찰관은 서문과 발문이 있고, 권말에 간행년, 간행장소, 연화질과 시주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간행 당시의 상황을 아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사찰에서 각판과 인쇄기술을 전승해온 역승들은 사찰의 필요뿐만 아니라 관서 및 사가의 의뢰로 각종 서책을 개판했으니 그들이 조선시대 목판인쇄술의 발달에 기여한 공로는 실로 지대한 것이었다.

현재 전래되고 있는 판목 가운데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에 판각된 것이 가장 많다. 이 시기는 임진왜란으로 유실된 불경을 판각하기 위해 활발하게 판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⁶⁾ 17세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불서를 각판한 사찰은 龍腹寺, 能仁庵과 雲興寺이다. 雲興寺에서도 현종 9(1672)년부터 숙종 35(1709)년까지 많은 불서를 간행했는데, 특히 숙종 7(1681)년 한해에 모두 6종의 불서를 간행하고 있어, 이 시기는 최고조로 목판사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병란을 거치고 피해를 입은 사찰의 중건과 동시에 기초적 경전의 간행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전성기를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뒷받침이 된 것은 판각을 담당할 인적 요소가 갖추어져 있었고, 아울러 인근에 紙所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것을 보아 서적 간행에 필요한 종이를 생산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¹⁷⁾

운흥사 목판에 대한 가장 최근의 조사는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가 2001년에 실시한 것으로, 목판 16종 673판의 내용이 보고서¹⁸⁾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역은 <표 1>과 같으며, 운흥사 목판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16)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서울: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7). 54.

17)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雲興寺址發掘調査報告書』(昌原: 예맥출판사, 2003). 21-22.

18)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雲興寺木板資料集』(昌原: 예맥출판사, 2003).

<표 1> 雲興寺開刊木板現況

連番	木板名	板數	板刻年
01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6	顯宗 9(1668). 春
02	妙法蓮華經 卷1	31	顯宗 9(1668). 7.
03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155	顯宗 13(1672).12.
04	勸修淨業往生捷徑圖(海水觀音像 뒷면)	1	肅宗 4(1678). 3.
	海水觀音像(勸修淨業往生捷徑圖 뒷면)		
05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16	肅宗 6(1680). 春
06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	127	肅宗 7(1681). 4.
07	大乘起信論疏	80	肅宗 7(1681). 4.
08	禪源諸詮集都序	37	肅宗 7(1681). 4.
09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38	肅宗 7(1681). 5.
10	大慧普覺禪師書(書狀)	59	肅宗 7(1681). 6.
11	高峰和尚禪要	27	肅宗 7(1681). 6.
12	禪宗永嘉集	48	肅宗 10(1684). 2.
13	碧松堂堊老行錄	19	肅宗 16(1690). 7.
14	雲興寺佛糧沓募緣記	5	肅宗 23(1697).
15	千聖山雲興寺事蹟	4	肅宗 23(1697). 3.
16	慕雲大老行蹟	10	肅宗 35(1709). 5.
합계	총 16종 673판		

3. 傳來 板木과 特徵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운흥사에서 판각한 불경은 16종이다. 이들 판목은 지금도 전래되고 있으나 조선말까지 편찬된 각종 책판목록에는 운흥사의 판목이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때 판각된 서적은 四集(大慧,都序,禪要,節要), 四教(楞嚴經, 起信論疏, 金剛經), 經典(法華經, 恩重經), 禪宗書(永嘉集), 僧傳(二老,慕雲), 儀式書(默言作法), 雲興寺 資料(佛糧沓, 事蹟), 其他(觀音像, 捷徑圖)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러나 戒律書는 물론 많은 사찰에서 간행한 眞言이나 陀羅尼는 판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순수한 학문적 전통으로 신앙생활을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판목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佛說大報父母恩重經

鳩摩羅什(後秦)譯. [顯宗 9(1668)]

16板. 圖. 四周單邊. 有界. 10行18字,注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板心題: 恩.

跋: 戊申(1668)…思運.

刊記: 康熙七年戊申(1668)初春陽月慶尙道開寧地白馬山敲防寺始設開刊
則移于蔚山圓寂山雲興寺持在.

운흥사 목판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목으로 현종 9(1668)년 봄에 판각되었다.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을 가르친 경전이며, 약칭해서 『恩重經』이라 한다. 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충효를 중시하는 분위기에 따라 孝를 주제로 한 경전이 필요했던 중국에서 편찬한 僞經으로 보는 것이 추세이다. 이 경전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주는 은혜를 ‘十大恩’으로 나누고 삽도를 첨가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恩重經』이 고려말에 전래된 후 조선초기부터 삽화를 곁들인 판본이 제작되었고, 중기 이후에는 諺解本도 간행되었다. 雲興寺本은 演熙가 덕유산에서 판자를 구해와 開寧 白馬山 敲防寺에서 개간하여 운흥사로 옮긴 것이다. 이 내용은 발문과 간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緣化秩에는 敲防寺 승려와 운흥사 승려가 다 기록되어 있다. 이 판본은 언해본으로 모두 28장인데 양면이므로 책판은 14이다. 본문 13판, 발문과 간기 1판이다. 그러나 보판이 2판 있어 모두 16판이 남아있다.¹⁹⁾

2) 妙法蓮華經, 권1.

鳩摩羅什(後秦)譯. [顯宗 9(1668)]

31板. 圖. 四周單邊. 半郭: 22 × 16 cm. 無界. 8行13字. 內向二葉花紋魚尾.

板心題: 法.

弘傳序: 道宣…靖康丁未(1127)

19)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雲興寺木板資料集』(昌原: 예맥출판사, 2003).

남아 있는 판목의 수는 이하 모두 동일한 자료에서 인용함.

要解序：及南.

刊記：康熙七(1668)年七月日慶尙道蔚山西雲興寺開板.

약칭해서 『法華經』이라 하는데 一心의 근원이며 諸法實相의 미묘한 길을 제시하여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경전이다. 가장 널리 읽힌 大乘經典의 하나로 釋迦牟尼의 40년 설법을 집약한 精髓가 수록되어 있다. 전후 여섯 차례에 걸쳐서 번역되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鳩摩羅什의 번역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종 9(1668)년에 판각되었는데, 전체 7권 가운데 권1의 판목만 수장되어 있다. 인본은 도 2장, 서문 6장, 妙法實相 3장, 본문 50장으로 모두 61장인데 양면이므로 책판은 31판이다. 전질을 판각했는데 권1만 전래되는지 아니면 권1만 판각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시주질과 연화질도 없고, 각수도 1명밖에 수록되지 않았다. 비슷한 분량의 『都序』, 『節要』와 『禪要』 모두 20명 이상의 각수가 동원되었다. 전체 다 판각했다면 다른 권차의 판목이 일부라도 남아있을 수 있을 텐데, 다른 卷次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여러 사찰이 분담하여 판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본은 경북대, 계명대와 동국대에 수장되어 있다.

3)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般刺密帝(唐)譯, 戒還(宋)解. [顯宗 13(1672)]

155板. 圖. 四周單邊. 半郭：20.7 × 14.3 cm. 無界. 11行22字. 無魚尾.

後跋：康熙壬子(1672)暢月日鷲峯山烏有境友雲之役信默.

刊記：康熙十一年壬子(1672)十二月日慶尙左道蔚山府圓寂山雲興寺開刊.

『首楞嚴經』 또는 『楞嚴經』으로 약칭하는데, 『華嚴經』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어서 『小華嚴經』이라고도 한다. 아난과 부처님의 긴 문답을 통해, 진실과 허망함을 구분하는 바른 통찰력의 구비, 엄정한 계율의 이행과 다라니의 지송 등을 권하고 있다. 가르침의 폭은 불교의 대소승과 현밀교를 모두 포괄하고 있을 정도로 광활하다. 스님들이 강원에서 四敎科의 하나로 필수적으로 배우는 경전이며, 한

국불교의 신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이 판목도 學熏의 주관으로 演熙가 주도하여 판각한 것이며, 도 2장, 서문 1장, 본문 300장, 발문 2장, 복판 2장, 보판 2장, 공판 1장으로 모두 310장인데 양면이므로 책판은 155판이다. 통도사의 판목에는 시주질 판목이 보이지 않는다. 동국대에는 2질의 인본이 있는데, (213.9능630)은 『木板資料集』과 동일하여 緣化秩이 없고 (213.9능6306)은 조금 다른 간기와 연화질이 있다. 간기는 康熙十一年壬子(1672)慶尙道蔚山府圓寂山雲興寺開刊이고, 緣化僧 가운데 다른 경전에 수록된 인물도 있다. 이 글 4장3절의 『楞嚴經』 緣化僧은 이 판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中林菴에서도 일부 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中林菴刊板時看護秩에 天監比丘, 性敏, 性悟, 哲學, 廣益, 愼湖가 수록되어 있고, 아울러 大功德主發願自費板梓練板自刊藏頭는 演熙, 發願化主別座來往浮木은 學熏이라 기록되어 있다.

4) 勸修淨業往生捷徑圖.

海水觀音像.

[肅宗 4(1678)]

1板. 圖. 80.2 × 45.9 cm.

刊記 : 康熙戊午(1678)年三月日慶尙道蔚山圓寂山雲興寺刻.

한 면에는 『觀音像』을 판각하고 뒷면에는 『捷徑圖』를 판각한 것이다. 전후면에 다 간기와 시주자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捷徑圖』는 正業을 닦아 극락에 왕생할 것을 권장하기 위해 제작한 목판화이다. 이 그림은 가장 위에 그림 제목과 그 좌우에 觀世音菩薩의 本心微妙六字大明呪인 梵字 ‘음마니반메훴’이 배치되어 있다. 그 아래에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觀音·彌勒·虛空藏·普賢·金剛水·文殊·除蓋障·地藏菩薩의 8대보살을 좌우에 배치하고, 대좌 아래에는 왕실의 장수를 기원하는 문구가 판각되어 있다. 하단에는 蓮池에 연꽃을 새겼는데, 3품으로 나뉘어 극락의 九品蓮華臺를 묘사하였다.

뒷면의 『觀音像』은 파도치는 바다에 출현한 觀世音菩薩을 묘사한 목판화이

다. 「法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에 따르면 마음속으로 觀世音菩薩을 간절하게 염원하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고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며, 높은 산에서 떨어져도 공중에서 멈추게 된다고 한다. 파도치는 바다에 南巡童子와 海上龍王이 좌우에 묘사되어 있고, 커다란 蓮葉 위에 관음보살이 앉아 있는 모습이다. 왼쪽 위에는 觀音鳥가 배치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연꽃 위 정병에 버들가지가 꽂혀있다. 근래에 인출하여 족자를 만든 海水觀音像이 운흥사에 있는데, 판각이 매우 정교하여 3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동하는 듯하다.

5)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編者未詳. [肅宗 6(1680)]

16板. 四周單邊. 無界. 8行14字. 內向黑魚尾.

板心題: 心經, 千手, 王供, 施食, 金剛, 五呪, 靈式 등.

刊記: 康熙十九年庚申(1680)暮春慶尙道蔚山地雲興寺開刊.

사찰 대중이 鉢盂供養할 때 默言으로 거행하는 의례의 절차를 기술한 것이다. 編者는 알 수 없다. 인본은 心經 8장, 千手 4장, 王供 8장, 施食 6장, 金剛 2장, 五呪 1장, 靈式 1장, 관심없는 2장, 모두 32장인데 양면이므로 실제 책판은 모두 16판이다. 默言作法으로 下鉢偈, 回鉢偈, 展鉢偈, 唱食偈, 受食偈, 奉飯偈, 五觀偈, 生飯偈, 淨食偈, 三匙偈, 絕水偈, 收鉢偈의 순서로 진행된다. 분량이 적어서 다른 불경과 함께 합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흥사판에는 食堂作法, 般若波羅蜜多心經, 千手, 神妙章句大陀羅尼經, 略禮王供, 作法, 觀音施食, 金剛纂, 五呪, 靈飯式이 합철되어있다. 판목의 마멸이 매우 심하다.

6) 金剛般若波羅蜜經

鳩摩羅什(後秦)譯, 傅大師(梁)贊, 慧能(唐)口訣, 宗密(唐)纂要, 冶父(宋)頌, 宗鏡(宋)提綱, 己和(朝鮮)說誼. [肅宗 7(1681)]

127板. 圖. 四周單邊. 半郭: 27 × 18.5 cm. 有界. 9行大字14字, 小字19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板心題：金剛經.

五家解序說：永樂乙未(1415)…涵虛堂.

曹溪六祖禪師序.

豫章沙門宗鏡提頌綱要序.

御製跋：蒼龍[甲辰 1664]丁未…金紐.

後跋：庚申(1680)…惺寂翁敬一.

刊記上卷：康熙二十年辛酉(1681)四月日慶尙道蔚山圓寂山雲興寺刊.

下卷：康熙十八年己未(1679)十二月日慶尙道蔚山圓寂山雲興寺刊.

이 경전은 大乘佛敎 초기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서 布施 波羅蜜의 공덕을 찬탄함으로써 실천을 권하는 내용이다. 鳩摩羅什이 번역한 『金剛般若波羅蜜經』의 五家解에 朝鮮初期 고승인 涵虛堂 己和의 說誼를 편입시킨 『金剛經五家解說誼』이다. 五家解는 梁나라 雙林 傅大師의 贊, 唐나라 六祖 慧能의 口訣, 唐나라 圭峯 宗密禪師의 纂要, 宋나라 冶父의 頌과 宗鏡禪師의 提綱이 더해졌다. 己和는 다른 판본과의 대조를 통해 오자와 탈자를 바로잡았다. 우리나라 강원에서 四敎科의 하나로 학습된 『金剛經』의 가장 권위있는 주석서로 열독되었다.

金紐의 발문 다음에 ‘先刊圓覺寺留板後刊雲興寺’가 부기되어 있음을 보아 세조 3(1457)년에 간행한 圓覺寺板을 중각한 것으로 보인다. 상하로 구성된 이 책은 두 시기에 걸쳐 판각되었다. 상권은 숙종 7(1681)년 4월에 판각되었고, 하권은 숙종 5(1679)년 12월에 판각되었다. 권상을 먼저 판각하지 않고 권하를 먼저 판각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인본은 도 1장, 서문 10장, 본문 상 126장, 본문 하 110장, 발 6장, 모두 253장인데, 양면이므로 실제 책판은 모두 127판이다. 인본은 국립도서관에 완질이 수장되어 있다.

7) 大乘起信論疏

馬鳴(印度)造, 眞諦(梁)譯, 法藏(唐)述, 宗密(唐)錄. [肅宗 7(1681)]

80板. 四周單邊. 半郭：21.9 × 16.7 cm. 無界. 10行18字. 黑口,內向二葉花紋魚尾.

板心題：起信論.

跋：白猿[庚申(1680)]…東溪病夫.

刊記 上卷：康熙二十年辛酉(1681)四月日慶尙道蔚山圓寂山雲興寺開刊。
下卷：康熙十九年庚申(1680)十月日慶尙道蔚山圓寂山雲興寺刊。

馬鳴이 저술하고 眞諦가 漢譯한 『大乘起信論』을 法藏과 草堂沙門 宗密이 주석한 것이다. 중국에서 찬술된 僞經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내용으로 보아 인도인의 저작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대승불교철학의 개론서이며, 이론과 실천면에서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서적이다. 교리론에서는 一心, 二門, 三大를 말하고, 실천론에서는 四信[믿음], 五行[수행]과 아미타불을 통한 정토왕생의 길을 말한 것이다. 이는 自利利他行을 실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金剛經』, 『圓覺經』, 『楞嚴經』 등과 함께 강원 四教科의 하나이다.

이 雲興寺本은 숙종 6(1680)년과 7(1681)년에 學勳의 주관으로 간행된 것이다. 演熙와 學勳이 『楞嚴經』, 『華嚴經』, 『金剛經』의 간행사업을 펼치면서 아울러 이 책도 간행한 것이다. 이 책판은 두 시기에 걸쳐 판각되었다. 권상은 숙종 7년 4월에 판각되었고, 권하는 숙종 6년 10월에 판각되었다. 권상을 먼저 판각하지 않고 권하를 먼저 판각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인본은 본문 상 91장, 본문 하 66장, 발문 2장, 모두 159장인데 양면이므로 실제 책판은 모두 80판이다. 인본은 규장각과 국립도서관에 완질이 소장되어 있다.

8) 禪源諸詮集都序

宗密(唐)述. [肅宗 7(1681)]

37板. 四周單邊. 半郭：19.4 × 14.3 cm. 無界. 9行19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板心題：都序.

刊記：康熙二十年辛酉(1681)四月日慶尙道蔚山圓寂山雲興寺開刊.

禪教一致를 주창한 圭峰宗密(780-841)의 저술로 약칭해서 『都序』라고 한다. 宗密은 선문 제가의 偈頌을 모아 101권의 『禪源諸詮集』을 저술하였는데, 회창 5(845)년 會昌의 法難이나 唐 말기에 있었던 五代의 난으로 멸실되고, 덧붙여진 都序만이 남게 되었다. 상권에는 禪을 실천하는데 있어 얕고 깊은 단계에 따른

五種禪으로 분류하고, 禪宗의 三門과 教宗의 三門을 대비하였고, 하권에서는 三門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 설명하였다. 화엄종의 교의에 따르는 입장과 선의 체험에 따르는 입장을 접목한 禪教一致를 주장한 대표적인 저술이다. 인본은 서문 5장, 본문 상 35장, 본문 하 33장, 발문 1장, 모두 74장인데 양면이므로 실제 책판은 모두 37판이다. 고려말부터 유통되어 오다가 16세기부터 四集科의 교재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강원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국립도서관과 동국대에 인본이 수장되어 있다.

9)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知訥(高麗)著. [肅宗 7(1681)]

38板. 四周單邊. 半郭: 19.9 × 13.9 cm. 無界. 9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板心題: 私記.

刊記: 康熙二十年辛酉(1681)五月日慶尙道圓寂山雲興寺開刊.

고려 희종 5(1209)년 普照知訥(1158-1210)이 수행자들을 위해 저술한 禪修行의 指針書인데, 약칭해서 『節要』라고 한다. 당나라 圭峯宗密이 荷澤神會의 뜻을 개진하기 위하여 저술한 『法集別行錄』을 知訥이 간략하게 줄인 것이다. 그는 수행자의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참다운 수행의 길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저술하였다. 知訥은 이 책에서 본래의 진면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의 마음인 空寂靈知한 본성을 단번에 깨닫고, 萬行을 닦아 自利利他를 갖추어야 올바른 수행자라고 하였다. 이를 수행해 가는 방법으로 頓悟漸修說을 주장하고, 頓悟와 漸修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고승의 저술로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숙종 7(1681)년에 판각되어 인본은 본문 75장이며, 양면이므로 실제 책판은 모두 38판이다. 『節要』도 16세기부터 강원 四集科의 하나로 채택되어 널리 읽혀지고 있다. 국립도서관과 동국대에 인본이 수장되어 있다.

10) 大慧普覺禪師書

宗杲(宋)著, 慧然(宋)錄, 黃文昌(宋)重編. [肅宗 7(1681)]
59板. 四周單邊. 半郭: 18.4 × 14.3 cm. 無界. 10行17字. 魚尾無.
板心題: 書.
刊記: 康熙二十年辛酉(1681)六月日慶尙道蔚山圓寂山雲興寺開刊.

중국 宋나라 大慧 宗杲 普覺禪師(1089-1163)의 편지를 모아 편찬한 것으로 약칭해서 『書狀』이라고 한다. 大慧는 圓悟克勤禪師의 법을 이어받고 第一座에 오른 禪僧이며 臨濟 제11대 法孫이다. 看話禪을 창도하고, 『正法眼藏』을 저술하였다. 이 書狀은 看話禪의 입장에서 禪 공부에 관한 요지를 42인에게 보낸 62편의 답신을 모은 것이다. 南宋 乾道 2(1166)년에 간행되어 우리나라에 전래된 뒤 고려 普照國師 知訥이 이 책을 보다가 도를 깨우친 이후로 看話禪을 지도하는 지침서로 사용되었다. 이후 四集科의 하나가 되었으므로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운흥사관의 인본은 본문 114장, 揀病 3장인데, 양면이므로 실제 책판은 모두 59판이다. 인본은 국립도서관과 계명대에 소장되어 있다.

11) 高峰和尙禪要

原妙(宋)著, 持正(宋)錄, 洪喬祖(元)編. [肅宗 7(1681)]
27板. 四周單邊. 半郭: 18.1 × 12.5 cm. 無界. 8行18字. 內向二葉花紋魚尾.
板心題: 要.
序: 至元甲午(1294)…洪喬祖.
跋: 至元甲午(1294)…朱穎達.
刊記: 康熙二十年辛酉(1681)六月日慶尙道蔚山圓寂山雲興寺開刊.

元나라 고승 高峰原妙(1238-1295)선사의 법어와 서신에서 참선의 요결들을 편록하여 侍者 持正이 기록하고, 至元 14(1354)년 9월 天目山 參學 直翁居士 洪喬祖가 편찬하였다. 약칭해서 『禪要』라고 한다. 학인들에게 지침이 되도록 깨닫는 방법을 밝힌 禪修行的 요령이다. 고려말에 전래되어 유통되다가 조선 碧松

智嚴(1464-1534)선사가 강원 의 교재로 채택한 이후 四集科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이 운흥사판은 숙종 7(1681)년 여름에 판각한 것이다. 인본은 서문 4장, 본문 49장인데 양면이므로 실제 책판은 모두 27판이다. 인본은 국립도서관과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12) 禪宗永嘉集

玄覺(唐)撰, 行靖(宋)註, 淨源(晋)修定科, 得通(朝鮮)說誼. [肅宗 10(1684)] 48板. 四周單邊. 半郭: 18.5 × 14 cm. 無界. 11行19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板心題: 永嘉集.

刊記: 康熙二十三年甲子(1684)二月日慶尙道蔚山雲興寺刊.

이 판본은 唐의 玄覺(?-713)禪師가 편찬한 책으로 『永嘉禪宗集』이라고도 한다. 永嘉는 溫州의 永嘉사람인 玄覺大師를 지칭한다. 성은 戴氏이며 출가하여 三藏을 두루 연구하였으므로 天台의 止觀에 통달했다. 『永嘉集』은 禪定에 들 적에 주의할 것과 수행하는 과정에 관해 慕道志儀, 戒橋奢意, 淨修三業, 奢摩他頌, 毗婆舍那, 優畢叉頌, 三乘漸次, 理事不二, 勸友人書, 發願文的의 10門으로 나누어 서술한 禪宗의 要訣이다. 이에 宋의 石壁行靖이 주를 달고 晋水淨源이 科文을 修定하였다. 친태종과 선종 양과의 교리를 종합한 최초의 저술로서 宋은 물론 고려에도 널리 영향을 끼친 책이다. 본 목판의 인본은 涵虛堂序 2장, 서문 6장, 본문 상 38장, 하 49장, 모두 95장인데 양면이므로 실제 책판은 모두 48판이다. 인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13) 碧松堂堊老行錄

智嚴(朝鮮)撰, 休靜(朝鮮)編. [肅宗 16(1690)]

19板. 圖. 四周單邊. 半郭: 17.2 × 12.6 cm. 無界. 6行8字. 內向黑魚尾.

板心題: 碧.

跋: 白猿[庚申(1680)]...敬一.

刊記：康熙二十九年庚午(1690)七月日慶尙道蔚山雲興寺開刊。

조선중기의 승려 碧松堂智嚴(1464-1534)과 慶聖堂一禪(1533-1608)의 行錄이 함께 수록되었으므로 흔히 『二老行錄』이라고 한다. 권두에 碧松堂의 眞影과 贊, 그리고 慶聖堂의 眞影과 贊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碧松堂 堃老行錄과 碧松堂 堃老頌이 수록되어 있다. 頌은 선조 2(1569)년 西山大師 淸虛休靜이 흠여져 있는 智嚴의 歌頌 20수를 모은 것이다. 이 가송 다음에 慶聖堂 休翁行錄, 이어 敬一이 필사한 慶聖堂 休翁行錄 後跋이 수록되었고, 말미에 開刊帙과 刊記가 붙어 있다.

休靜(1520-1604)은 중종 35(1540)년 授戒師로 慶聖一禪, 傳法師 芙蓉靈觀 등을 모시고 戒를 받았다. 慶聖堂 休翁은 碧松堂 智嚴의 제자이며, 休靜의 私叔인 禪和子一禪이다. 휴정은 芙蓉靈觀(1485-1571)을 통해 碧松堂 智嚴의 법맥을 이었다. 이런 연유로 休靜이 두분 선사의 行錄을 집필한 것이다. 碧松 智嚴의 맥은 芙蓉靈觀-淸虛休靜·浮休善修-碧巖覺性-慕雲震言으로 이어졌으므로 운흥사에서 이 책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雲興寺板은 숙종 16(1690)년 7월에 판각되었다. 인본은 碧松堂 18장, 慶聖堂 14장, 발문 6장, 모두 38장인데 양면이므로 실제 책판은 모두 19판이다. 조선조의 法脈과 高僧의 생애를 아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인본은 규장각과 동국대에 수장되어 있다.

14) 雲興寺佛糧畝募緣記

雲興寺(朝鮮)撰. [肅宗 23(1697)]

5板. 四周單邊. 有界. 8行13字. 內向二葉花紋魚尾.

板心題：佛糧畝, 云興寺記.

刊記：康熙三十六年丁丑(1697)姑洗下浣友雲之役龍岩子潤草書于上南菴丈室中.

본서에는 운흥사에 시주한 토지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권두에는 불사를 하기 위해 시주받게 된 과정을 쓴 서문이 있다. 본문은 大施主秩이라 제한 佛香畝,

寺位沓庫라 제한 佛香沓과 題 없는 云興寺位로 구성되어 있다. 大施主秩에 수록된 印潤, 一淸, 坦修, 天贊, 信淨은 운흥사에서 간행한 불경의 권말 山中大德에도 수록된 스님이다. 李春鶴과 李宗山도 보이는데 李宗山은 불경판각에 많은 시주를 한 李終山과 동일인일 수도 있다. 雲興寺佛糧沓募緣記를 통해 임란 후 불타버린 通度寺 大雄殿(1641.1644)을 중창한 友雲眞熙스님의 불사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존 책판은 5판이다. 이 책판의 인출본이 합천 해인사에 전래되고 있다.²⁰⁾ 불사를 하기 위해 시주받은 전답을 적은 내역서로서 당시 사찰경제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15) 千聖山雲興寺事蹟

雲興寺(朝鮮)撰. [肅宗 23(1697)]

4板. 四周單邊. 有界. 8行13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板心題: 事蹟.

後跋: 崇禎七年閏逢闍茂[甲戌(1634)]…逍遙門人友雲.

康熙三十六年丁丑(1697)…友雲門人龍巖野衲秀遠.

刊記: 康熙三十六年丁丑(1697)三月日蔚山雲興寺事蹟刊.

운흥사의 창건과 중창에 관해 기록한 책이다. 신라의 元曉大師가 신통력으로 擲盤臺에서 중국 法雲寺 승려 천명을 구해주자, 이들 승려가 원효의 제자가 되고자 신라로 찾아와서 머문 곳이 운흥사 창건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천성산이란 이름도 천명의 승려가 온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後跋을 통해 조선 인조 19(1641)년 通度寺의 大雄殿을 중창한 逍遙門人 友雲堂 眞熙禪師가 편찬한 것으로 보아 통도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말의 '事蹟鏤板志'에 '康熙三十六年丁丑(1697)…友雲門人龍巖野衲秀遠拜書'라 되어 있어 이것을 보면 友雲스님의 뜻을 이어 그의 門人 秀遠이 숙종 23(1697)년 이곳 雲興寺에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판목은 결실된 부분이 많아 그 전말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울산 호계의 신흥사 수장본인 『千聖山雲興寺事蹟』을 통해 알 수 있다.²¹⁾

20)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雲興寺木板資料集 (昌原: 예맥출판사, 2003). 734.

16) 慕雲大老行蹟

秀暎(朝鮮), 淸愼(朝鮮) 共撰. [肅宗 35(1709)]

10板. 四周單邊. 半郭: 24.5 × 18.3 cm. 有界. 7行14字. 內向二葉花紋魚尾.

板心題: 慕雲, 華嚴, 寶雲.

跋: 己丑(1709)灌佛日門人敏悟.

跋: 己丑(1709)端午日法子曇卷.

刊記: 康熙四十八年己丑(1709)端午日刊于梁山千聖山上院庵移置于蔚山雲興寺.

이 서적은 조선중기의 승려 慕雲堂震言(1622-1703)의 행적, 그의 대표적 저술인 ‘大方廣佛華嚴經七處九會品目之圖’와 寶雲堂道巖(1621-1705)의 행적을 수록한 것이다. 震言은 법휘이며, 자는 就古, 당호는 慕雲이며 진주 출신이다.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義悅의 제자가 된 후 碧巖의 지도를 받았고, 수십년 동안 모악산, 덕유산, 가야산, 불암산, 황악산, 팔공산, 지리산, 축서산 등지에서 수행하였다. 숙종 12(1686)년 팔공산 遠公의 청으로 은혜사 雲浮庵에 가서 華嚴法會를 열어 교법을 크게 펼쳤다고 한다. 그의 사리탑은 雙溪寺에 있다.

寶雲堂은 호가 道巖이며 자는 淸凜이다. 속성은 高氏로 경주출신이다. 曇華에게 구족계를 받고 友雲에게도 공부하고, 慕雲에게 와서 불도를 토론했었다. 碧松智巖의 맥은 芙蓉靈觀-淸虛休靜·浮休善修-碧巖覺性-慕雲震言으로 이어졌으므로 운흥사에서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慕雲大老行蹟 5장, 華嚴品目 9장, 寶雲堂行蹟 4장, 발문 2장이어서 모두 10판이다. 이 慕雲大老行蹟은 震言의 문인인 秀暎이 편찬하고, 寶雲堂行蹟은 孫弟子 淸愼이 편찬하였다. 이 책판은 上院庵에서 판각해서 운흥사로 옮겨온 것이다. 인본은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華嚴品目は 함께 장책되지 않은 것이다.

위를 종합하면 <표 2>와 같다. 演熙가 덕유산에서 가져온 판자로 판각한 서적은 「恩重經」, 「法華經」, 「楞嚴經」, 「金剛經」, 「起信論疏」, 「永嘉集」이다. 「觀音

21)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雲興寺木板資料集』(昌原: 예맥출판사, 2003), 750.

像』과 『捷徑圖』는 판목 한 장에 앞뒤에 새겼으므로 이도 덕유산 판자로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연희가 주도한 판각은 대개 덕유산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발문 외에 새로운 발문이 추가된 것은 『恩重經』, 『楞嚴經』, 『金剛經』, 『起信論疏』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로 불경을 판각한 것을 보아 운흥사는 경중에서 멀리 떨어진 궁벽한 사찰이지만 학문적인 전통을 지녔고, 순수한 신앙형태를 지닌 격이 높은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雲興寺開刊木板現況

連番	木板名	本文張	其他張	補板	板子	序跋	印本收藏處
01	恩重經	26	跋1, 刊記1	補2	德裕山	跋: 思運	
02	法華經	50	圖2, 序6, 實相3		德裕山		慶北, 啓明, 東大
03	楞嚴經	302	圖2, 序1, 跋2	複1	德裕山	跋: 信默	東大
04	捷徑圖	1			[德裕山]		觀音像: 雲興寺
	觀音像						
05	默言作法	16					
06	金剛經	236	圖1, 序10, 跋6		德裕山	跋: 敬一	國立
07	起信論疏	157	跋2		德裕山	跋: 東溪	國立, 奎章閣
08	都序	68	序5, 跋1				國立, 東大
09	節要	75					國立, 東大
10	大慧	114	揀病3				國立, 啓明
11	禪要	49	序4				國立, 奎章閣
12	永嘉集	87	序2, 6		德裕山		韓中研
13	堊老行錄	32	跋5, 刊記1			跋: 敬一	奎章閣, 東大
14	募緣記	10					海印寺
15	事蹟	4	跋3, 刊記1			跋: 友雲, 秀遠	울산호계신흥사
16	大老行蹟	18	跋2			跋: 敏悟, 曇卷	國立(不備)

4. 板刻의 發願 및 功役

조선시대 개관된 불서의 수는 2천여종에 달한다²²⁾는 기록이 있다. 이 가운데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개관된 판본이 과반수이다. 대다수 사찰에서는 특정시기에 한해 활발하게 판각활동을 한 경향을 나타낸다.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불서를 판각하게 되는데, 특정시기에 한정된 것은 특별한 동기나 목적, 특정인물의 각별한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목적이 전란으로 민심이 메마른 폐허에서 인간내면에 잠재해 있는 종교로의 귀의심이 발로된 결과로 보는 학설²³⁾이 있다. 이에 대해 임진왜란으로 燒盡된 불서를 간행하고, 간경공덕으로 行願을 성취하려는 것으로 幹善化主나 발원각승의 각별한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학설도 있다.²⁴⁾ 어쨌거나 사찰에서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발원, 시주, 緣化僧, 물자의 4요소가 갖추어져야 가능한 것이었다.

4.1 發願者

귀의심의 발로이든 공덕으로 행원을 성취하기 위함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불경을 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 의지는 바로 불경 간행의 발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바로 이 기간 궁벽한 울산에는 대규모로 간경을 발원한 인적인 요소와 함께 물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현종 9(1668)년부터 숙종 35(1709)년까지 42년 동안 16종을 판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현종 9년부터 숙종 23(1697)년까지 30년 동안 집중적으로 16종을 판각하였으므로 평균 2년에 1종을 판각한 셈이다.

발원자는 사찰의 스님일 수도 있고, 또는 신도일 수도 있다. 권말의 여러 기록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권말 緣化秩의 大德은 책에 따라 山中知識, 山中大德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는데,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義林, 法眼, 普濟, 印罔, 贊英, 檀混, 惠文 비구들이 여러 불경 간행에 중심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로는 一寬, 太應, 印哲, 坦修 등도 후원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발원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 前間恭作, 『朝鮮の板本』(福岡: 松浦書店, 1937). 23.

23) 金戊祚, “慶南地方 佛經冊板調査研究,” 『동아대학원논문집』 v.4 (1980). 13.

24) 金相溟,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7.

다. 젊은 승려들이 발원한 후 사찰의 어른 스님을 먼저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 「恩重經」 간행에 참여한 學琳은 10여년 후 四集 가운데 3종 간행에 시주로 참여하였다. 「楞嚴經」 간행에 참여한 眞熙는 25년 후에 편찬된 「事蹟」의 발문을 썼다.

<표 3> 板刻을 後援한 山中知識

連番	板木略名	板刻年	山中知識
01	恩重經	1668.春.	双雲(敲防寺), 玉清, 敬信, 海雄, 元俊, 妙嚴, 學琳(雲興寺)
02	法華經	1668. 7.	
03	楞嚴經	1672.12.	眞熙, 慧謚, 能淨(木板資料集)
			克罔, 義嚴, 印宗, 眞熙, 能淨, 弘元, 慧謚, 義林(東大本)
04	捷徑圖 觀音像	1678. 3	
05	金剛經下	1679.12.	義林, 法眼, 普濟, 印罔, 贊英, 檀湜, 惠文, 一寬 등
06	默言作法	1680.春.	義林, 太應, 普濟, 印罔, 檀湜
07	起信論下	1680.10.	義林, 法眼, 普濟, 印罔, 贊英, 檀湜, 惠文
08	起信論上	1681. 4.	
09	金剛經上	1681. 4.	義林, 法眼, 普濟, 印罔, 贊英, 檀湜, 惠文 등
10	都序	1681. 4.	義林, 一寬, 印罔, 法眼, 普濟, 檀湜, 太應, 贊英 등
11	節要	1681. 5.	一寬, 普濟, 檀湜, 坦修, 神益, 太英
12	大慧	1681. 6.	
13	禪要	1681. 6.	
14	永嘉集	1684. 2.	坦修
15	竺老行錄	1690. 7.	神益, 太應, 普濟, 印罔 등
16	募緣記	1697.	
17	事蹟	1697. 3.	普濟, 印罔, 贊悅, 守閑, 宣鑑, 潤草 등
18	大老行錄	1709. 5.	

지속적으로 30년 이상 간경을 실제로 발원한 자는 스님이었을 것이고, 신도들이 호응하여 시주하고 협력하였을 것이다. 권말의 시주질에 나타나는 바를 살펴서는 흐름은 알 수 있다. 발원자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는 드물지만 특별히 발원자를 밝힌 경우는 「恩重經」의 戒信, 「楞嚴經」은 演熙와 學動이며, 「起信論」, 「金剛經」, 「捷徑圖」의 學熏이다. 戒信의 경우는 다른 불경 간행에 가담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 운흥사의 불경 판각을 주도한 중심 스님은 學熏과 演熙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學熏은 4종 불경 판각에 發願하고, 供養主, 化主, 來往, 別座, 勸化, 引勸으로 활동하였고, 演熙는 「恩重經」부터 「堃老行錄」까지 14종의 판각에 참여한 각수승이었다.

學熏은 鶴城[蔚山]人으로 演熙가 萬善 가운데 弘法에 비할만한 것이 없고 백행은 三界八部에 미칠 수 있으므로 재물을 내어 간행할 것을 제의하자 함께 발원하였다. 한때 울산지역이 기근과 가뭄으로 극심할 때에 演熙와 함께 「金剛經」 판각조성 불사금을 전액 성금으로 내놓아 민생을 구제하기도 했다. 두 스님은 標致가 俊邁하고 風節이 淸高해서 名利를 쫓지 않고 弘道의 뜻을 품었고, 舉止를 서로 쫓아 不離하므로 사람들이 寒山과 捨得에 비유하였다²⁵⁾고 한다. 學熏은 學訓, 學勳으로도 기록되었는데, 「恩重經」 간행에는 學訓, 「楞嚴經」과 「法華經」 간행에는 學勳으로 기록되고, 나머지는 모두 學熏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楞嚴經」의 경우 緣化秩에는 學勳으로, 발문에는 學熏으로 기록되어 있어 다양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學熏은 「堃老行錄」 이후 판각된 4종에는 보이지 않는다.

4.2 施主

발원스님에 이은 중요한 역할은 供養施主라고 할 수 있다. <표 4>와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공양시주는 스님이거나 재가불자가 다 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恩重經」의 경우는 自費供饋, 補添, 鐵物補添, 對床巾布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으나 모두 시주로 볼 수 있는데 10명이다. 스님이 시주하여 간행한 경우는 「默言作法」, 「堃老行錄」과 「事蹟」이며, 재가불자의 시주로 간행한 것은 「楞嚴經」과 「起信論」이며, 알 수 없는 경우는 「法華經」, 「募緣記」, 「大老行錄」이며, 나머지는 모두 승속이 시주하여 간행한 것이다.

권말에는 시주들의 명단만 수록되어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시주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金剛經」과 「起信論」의 간행에는 李終山保體, 亡父李於屯,

25) 金剛般若波羅蜜經, 鳩摩羅什(後秦)譯, 己和(朝鮮)說誼. 木版本. [肅宗 7(1681)]. 後跋.

亡母終月, 李春鶴兩主, 金士男兩主가 주로 시주하였다. 특이한 점은 亡父李於屯과 亡母終月이 시주한 것인데, 이들은 亡者이다. 이는 망자의 자녀가 망자의 명의로 시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起信論』의 공양주 명단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고, 『金剛經』 下의 본문 난외에 李從山爲亡父李於屯과 亡母終月이란 시주자 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李從山이 先亡父母의 이름으로 시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楞嚴經』의 成順命靈駕와 四集의 妙性靈駕, 梁榮金靈駕, 車氏莫春靈駕, 竺彥靈駕도 역시 망자의 자녀나 지인이 망자의 명의로 시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표 4> 供養施主

連番	板木	板刻年	供養施主
01	恩重經	1668.春.	自費供饋: 學訓 補添: 清元比丘, 金茂上兩主 鐵物補添兩主: 金命吉, 金莫龍, 金愛尙, 奉齋男, 金禾里 對床巾布: 萬卜兩主, 玉今兩主
02	法華經	1668. 7.	
03	楞嚴經	1672.12.	孫召史保體, 成順命靈駕, 金氏德女, 李得英兩主, 朴榮富兩主, 崔得立兩主, 朴梅石兩主, 金永祐兩主
04	捷徑圖	1678. 3	朴應男兩主, 金順龍兩主, 金守立兩主, 汝乃兩主, 金仁發兩主, 李從山保體, 淨明保體, 印天比丘
05	觀音像	1678. 3.	智日比丘, 香介兩主
06	金剛經下	1679.12.	李終山保體, 亡父李於屯, 亡母終月, 金士男兩主, 李春鶴兩主
07	默言作法	1680.春.	義林, 太應, 普濟, 印罔, 檀混
08	起信論下	1680.10.	李終山保體, 亡父李於屯, 亡母終月, 李春鶴兩主, 金士男兩主
09	起信論上	1681. 4.	李終山保體, 亡父李於屯, 亡母終月
10	金剛經上	1681. 4.	李終山保體, 亡父李於屯, 亡母終月, 金士男兩主, 李春鶴兩主, 善擇比丘
11	都序	1681. 4.	學林比丘, 彥明比丘, 雪真比丘, 太圭比丘, 道文比丘, 靈寬比丘, 妙性靈駕, 德花保體, 梁榮金靈駕, 車氏莫春靈駕, 竺彥靈駕, 再熙比丘, 天心比丘, 振還比丘
12	節要	1681. 5.	彥明比丘, 雪真比丘, 太圭比丘, 道文比丘, 靈寬比丘, 安命元, 天心比丘, 振還比丘, 再熙比丘, 申儀男, 妙性靈駕
13	大慧	1681. 6.	德花保體, 妙禮保體, 雪真比丘, 彥明比丘, 靈寬比丘, 太圭比丘, 學琳比丘

14	禪要	1681. 6.	梁榮金靈駕, 車氏莫春靈駕, 竺彥靈駕, 學琳比丘, 天心比丘, 申儀男, 李召史
15	永嘉集	1684. 2.	清肅比丘, 通政金命立, 車莫龍兩主, 母難代保體, 玉春福兩主
16	栴老行錄	1690. 7.	太應比丘, 普濟比丘, 印罔比丘
17	募緣記	1697.	
18	事蹟	1697. 3.	普濟, 印罔, 贊悅, 守閑, 宣鑑, 潤草
19	大老行錄	1709. 5.	

이를 다시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운흥사 권말 시주는 모두 59명이다. 그 가운데 德花保體, 道文比丘, 妙性靈駕, 申儀男, 梁榮金靈駕, 再熙比丘, 振還比丘, 車氏莫春靈駕, 竺彥靈駕는 2종 판각에 참여하였고, 金士男兩主, 雪眞比丘, 彥明比丘, 靈寬比丘, 李春鶴兩主, 天心比丘, 太圭比丘, 學琳(學林)比丘는 3종 판각에 참여하였다.

<표 5> 雲興寺板 佛經의 卷末 施主

01	克英(事蹟)	梁榮金靈駕(都序, 禪要)
02	金氏德女(楞嚴經)	彥明比丘(大慧, 都序, 節要)
03	金命立通政(永嘉集)	汝乃兩主(捷徑圖)
04	金士男兩主(金剛經上下, 起信論疏下)	呂軒(事蹟)
05	金守立兩主(捷徑圖)	靈寬比丘(大慧, 都序, 節要)
06	金順龍兩主(捷徑圖)	玉春福兩主(永嘉集)
07	金永祐兩主(楞嚴經)	李得英兩主(楞嚴經)
08	金仁發兩主(捷徑圖)	李召史(禪要)
09	母難代保體(永嘉集)	亡父李於屯(金剛經上下, 起信論疏上下)
10	曇順(事蹟)	李終山保體(金剛經上下, 起信論疏上下, 捷徑圖)
11	德花保體(大慧, 都序)	李春鶴兩主(金剛經上下, 起信論疏下)
12	道文比丘(都序, 節要)	印天比丘(捷徑圖)
13	道聰(事蹟)	再熙比丘(都序, 節要)
14	明悟(事蹟7)	淨明保體(捷徑圖)
15	妙禮保體(大慧)	亡母終月(金剛經上下, 起信論疏上下)
16	妙性靈駕(都序, 節要)	智日比丘(觀音像)
17	朴梅石兩主(楞嚴經)	振還比丘(都序, 節要)
18	朴榮富兩主(楞嚴經)	車莫龍兩主(永嘉集)
19	朴應男兩主(捷徑圖)	車氏莫春靈駕(都序, 禪要)
20	普天(事蹟)	

21	思順(事蹟)	贊熙(事蹟)
22	思祐(事蹟)	天心比丘(都序, 節要, 禪要)
23	善擇比丘(金剛經上)	清肅比丘(永嘉集)
24	雪眞比丘(大慧, 都序, 節要)	聰寶(事蹟)
25	成順命靈駕(楞嚴經)	聰慧(事蹟)
26	性俊嘉善(事蹟)	崔得立兩主(楞嚴經)
27	孫召史保體(楞嚴經)	竺彥靈駕(都序, 禪要)
28	申儀男(節要, 禪要)	太圭比丘(大慧, 都序, 節要)
29	雙益(事蹟)	學琳比丘(大慧, 都序, 禪要)
30	安命元(節要)	香介兩主(觀音像)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시주는 李終山이다. 본인명으로는 물론 亡母終月과 亡父李於屯의 명의로도 시주하였다. 李終山은 『金剛經』上下, 『起信論疏』上下의 판각에 본인과 부모명으로 시주하였고, 『捷徑圖』는 본인만 시주하였다. 李終山은 『募緣記』에 수록된 李宗山과 동일인일 수도 있다. 『募緣記』에는 李宗山이山下員 2곳 합해 20庚4斗落지기를 시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⁶⁾ 이로서 당시 운흥사의 속가 대시주는 李從山, 金士男, 李春鶴인 것으로 보인다. 승가 대시주는 雪眞, 彥明, 靈寬, 天心, 太圭, 學琳比丘이다.

『法華經』은 운흥사판으로는 권1만 남아있어 권말시주를 알 수 없다. 운흥사에서 판목을 잃어버린 것인지 여러 사찰이 분담하여 간행한 바 운흥사에서는 권1만 판각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른 판목은 모두 전승되고 있는데, 유독 『法華經』의 판목만 유실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할 것 같다. 또한 유실되더라도 권차마다 일부분은 남을 수 있고, 권1도 망실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권1은 온전하고 나머지 권차는 없다는 것으로 보아 후자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회가 문경 백마산 敲防寺에 있을 때 덕유산에서 나무를 베어 『法華經』을 판각한 바 혹 敲防寺와의 연계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종 10(1669)년 敲防寺板이 金敏榮 수장본에 있으나,²⁷⁾ 이도 권1만이고 본문여백의 시주도 다르므로 의문의 여지는 있다. 그렇다면 권마다 판각사찰이 다르고, 그에 따라 시주도

26)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서울: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7). 738.

27) 『金敏榮所藏古書目錄』(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07). 37-38.

다를 것이므로 권1에도 운홍사의 시주질이 수록되어야 할 것이나 시주질이 보이지 않는다.

공양시주 가운데 특별하게 浮板施主를 별도로 기술한 경우도 있다. 智日, 印天比丘와 魯永民兩主는 『金剛經』 상하와 『起信論』 상하의 판각에 협조하였다. 이외에도 自願都執造功이라 기록된 경우도 있으나 명확하게 한 일을 알 수 없다.

이외에도 본문 난외 하방좌우의 여백에 기록된 시주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각수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²⁸⁾ 본고에서는 각수가 아닌 해당면의 판각이나 인출비용을 보시한 소액시주로 보고자 한다. 권말 시주질에 수록된 시주는 서적 간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보시한 대시주인데 비해, 본문 여백의 시주는 해당면의 판각비용 또는 소량의 인출지를 부담한 소액을 보시한 경우로 보는 것이다. 소액시주는 <표 6>에 보이는 바와 같다.

<표 6> 本文, 序, 跋, 餘白의 施主

板 木	本文, 序, 跋, 餘白의 施主
恩重經	戒信(功德刻)(1명)
法華經	加吾春, 姜世閑兩主, 姜?, 戒信, 戒還, 敬贊, 廣儀比丘, 克?, 今春, 金貴男, 金今立, 金金卜兩主, 金大吉, 金羅+叱進, 金禮奉, 金命會, 金茂上, 金奉上兩主, 金朋伊麻堂介, 金世男, 金彥希兩主, 金永泉, 金玉立, 金莛赤, 金龍伊, 金日奉自玉, 金子音同, 金丁男, 金俊敏, 金千秀, 金楚琬, 能哲, 大春, 德禮(柳氏德禮), 都愛文, 莫德兩主, 萬福, 文閑, 文現, 朴甘同, 朴萬伊, 朴每石, 朴鬣伊, 朴順卜, 朴英信, 朴恩印, 朴宗男兩主, 朴昌後兩主, 朴海石, 裴今伊, 裴齋金, 裴丁海, 寶安, 尙代, 双運, 石仁上兩主, 釋?, 性悟, 性哲, 孫千生, 信戒, 辛榮達兩主, 安於屯, 嚴齋萬, 齡今, 呂祐, 玉今, 禹金萬, 禹順?, 柳吉伊, 有代, 俞永立, 李貴生, 李得龍, 李得英, 李齋世, 李奉日, 李福立, 李先龍, 李勝男兩主, 李元兩主, 李月山, 李春日, 李海男, 田戒光, 鄭芑, 鄭丁男, 鄭春世兩主, 趙福道, 趙主此, 朱黃日, 車干云, 瓚岑, 崔齋立, 崔億萬, 竺彥, 太英比丘, 玄覺, 洪應鳳兩主, 子生李氏子辰生已生尹氏, 子呂氏卯生母申氏亥生(101명 이상)
楞嚴經	甘德兩主, 姜仁老, 姜應日, 敬雲, 戒春, 戒花(靈駕), 高氏德只, 高生伊, 孔今生, 孔德守, 孔龔大, 孔田生, 廣明, 廣儀, 仇氏愛眞, 菊花靈駕, 貴代, 金戒男兩主, 金戒福, 金戒生, 金戒仁, 金戒宗(兩主), 金貴成, 金金福, 金大得, 金氏德禮, 金芑石, 金杜英, 金齋男, 金齋龍, 金命金, 金武祥, 金敏, 金氏奉代, 金士命, 金順龍, 金順伊, 金永祐, 金禮奉,

28) 金相溟, “松廣寺 四天王像 發掘資料의 綜合의 研究 ; 妙法蓮華經玄義 · 法華文句記의 刻手 研究,” 『書誌學研究』 제30집(2005. 6), 45-59.

	<p>金奧立, 金吾永, 金氏玉今, 金亨未, 金應錄, 金儀立, 金以乞, 金益見, 金日男, 金日蓮, 金正信, 金正安, 金宗業, 金千世, 金千秀, 金氏哲建(生員), 金哲命, 金超海, 金春男, 金春山, 金吞伊, 金太宗, 金好民, 魯永立, 魯永民, 魯永仁, 魯氏不貞, 論伊, 單明, 德禮, 德宥, 德只, 德春, 都仁龍, 乏今, 莫今, 齋德靈駕, 齋春, 明悟, 明眞保體, 文現, 文愛先, 文氏召史, 敏岑, 朴戒今, 朴戒先, 朴君子, 朴氏貴德, 朴今孫, 朴梅碩兩主, 朴思印, 朴孫伊, 朴榮富兩主, 朴日山, 朴宗男, 朴召吏, 白亨?, 法連, 普仁, 奉玉, 粉伊, 四禮, 山玉, 尙代, 双運, 徐順日, 徐以云, 徐以宗, 徐進芥, 徐氏進代, 徐氏進月, 石已咎, 成起建, 成起安, 成得民, 性林, 性敏, 成生伊, 成先龍, 成氏世良, 成順命靈駕, 性悟, 成自占, 成占俊, 成正龍, 性宗, 成俊立, 孫召吏(孫召吏伏爲亡夫成順命靈駕), 孫召吏(伏爲亡女子戒花靈駕), 守孟, 守還, 勝春, 勝浩, 是德, 辛戒立, 慎梅, 慎明, 辛彥孫, 神益, 信春, 安得浩, 安時傳, 愛春, 演熙(功德刻手), 永眞, 禮介, 吳夢上, 吳夢鶴, 玉粉, 禹氏仁芥, 云禮, 柳勝龍, 柳正龍, 尹氏玉琅, 應楚, 義仁比丘, 依慧比丘, 李戒男, 李貴男, 李得英(大夫兩主), 李得察, 李伏龍, 李士立, 李善伊, 李星得, 李勝男, 李勝龍, 李氏永代, 李永男, 李遠生, 李儀信, 李一萬, 李林伊, 李立伊, 李終山, 李春, 印罔, 印涇, 仁下, 印海, 一文, 一清, 張氏戒日, 張奉桂, 張正立, 鄭立兩主, 鄭白只, 鄭守仁, 鄭是善, 晶彥, 鄭積治, 宗善, 終月, 朱氏今眞, 朱大元, 俊雲, 陳山伊, 車仁成, 贊文, 天贊, 青蓮保體, 清遠, 清肅, 清下, 崔得立, 崔齋立, 最下, 最淑, 崔巴生, 最式比丘, 崔青立, 崔氏熏玉, 春良, 忠悅比丘, 忠日, 太敏, 太英, 八月, 片山月, 閑雲比丘, 行乃, 幸眠, 玄覺, 玄悟, 玄眞, 玄熙, 黃達進, ?芥, ?岑, ?春, ?春保體(230명 이상)</p>
金剛經下	<p>姜英代, 孔甲生, 孔今生, 孔耆大, 仇召史, 貴介, 今介, 今玉, 金男伊, 金士男, 金善龍, 金善立, 金世云, 金守仁, 金順龍, 金彥金, 金彥命, 金巴云, 金日奉, 魯永立, 魯永民, 魯永仁, 道日, 道贊, 莫春, 梅花, 文士先, 朴戒下, 朴得和, 朴莫立, 朴齋立, 朴山碧, 朴孫伊, 朴業伊, 朴吾作, 朴仁好, 朴日男, 朴政漢, 朴進好, 朴麻伊, 裴喪金, 裴仁發, 普覺, 粉月, 粉伊, 四敏, 山今, 尙介, 瑞仁, 徐正立, 釋連, 善學, 宋時云, 水今, 順介, 是吾德, 申齋男, 安貴世, 安是田, 安億世, 安悟, 愛眞, 愛花, 嚴儀生兩主, 汝乃, 爲父母演熙刊, 靈信, 玉行, 劉貴山, 劉青日, 柳興民, 尹今秀, 銀介, 李禮金, 李已先, 李日詳, 李正男, 李從山爲亡父李於屯(亡母從月), 李春鶴, 李環伊, 李召史, 仁生, 林宗發, 苐叱介, 岑德, 田敏, 鄭莫男, 鄭是先, 鄭是右, 鄭龍伊, 正月, 趙彥珠, 進代, 振海, 振還, 天印, 哲文, 哲嘗, 最下, 崔先立, 崔仁儀, 最日, 最贊, 崔太益, 最協, 沖衍, 沖學, 豐眼, 河以生, 惠英, 懷日, 召史(112명 이상)</p>
默言作法	能信刊, 元淡刊, 平訖(3명)
起信論下	<p>金召史, 文藏, 法行, 守寬, 時行, 愛春, 善女巴靈加, 禮介, 爲(父母, 亡父, 母從禮保體, 功德刻)元淡刊, 偉奇, 印罔, 印占, 眞習, 處敏, 爲父母平吃刊(15명 이상)</p>
起信論上	<p>剋性, 剋天, 瀨四, 瀨運, 瀨欽, 曇益, 大彥, 功德德元刊, 德贊, 萬岑, 梅春, 文學, 三珠, 三合, 尙元, 善乃, 功德順根, 順?, 功刊靈贊, 功刊靈擇, 玉熙, 功德元淡刊, 功德以訥刊, 李五樂, 功刊已擇, 再?, 正花, 祖閑, 俊昌, 俊惠, 處明, 天玉, 天學, 最彥, 卓玉, 功刊學贊, 學坦, 海允, 惠叔, 會眞, 懷贊(41명 이상)</p>
金剛經上	<p>覺云刊, 建?, 敬允, 戒均, 廣明, 廣海, 朗然, 朗遠, 能信, 湛俊, 大嚴, 功刊大遠, 道侃, 道信, 道占, 亡母莫春, 明悟, 文遠, 法惠, 普覺, 師了安, 思王, 思吃(功刊, 刊), 尙能,</p>

	<p>双彥, 徐召史, 釋敬, 釋任, 善下, 善擇, 善文, 雪云, 雪熏刊, 性敏, 性悟, 性浩, 性熏, 順根(功刊,刊), 信梅, 神日刊, 功刊演熙, 靈贊(功刊,刊), 靈擇, 吳戒宗, 元淡(功刊,刊), 尹加音金, 隱罔, 隱惠, 功刊以訥, 李林兩主, 李銀奉, 已擇(功刊,刊), 印天, 印輝, 一彥, 一清, 鄭今奉(功刊), 晶玄, 俊昌(功刊,刊), 俊惠, 處文, 處敏, 天敏, 天贊, 哲罔, 哲明, 清叔, 最敏, 最下爲母, 翠云, 就益, 坦修, 太敏, 太英, 太元, 功刊平屹, 學贊(功刊,刊), 玄忍, 玄?, 惠良, 惠弘, 弘性(功刊,刊), 召史兩主, ?眞, ?, 功刊?(84명 이상)</p>
<p>永嘉集</p>	<p>覺明比丘, 比丘覺?, 姜應起, 比丘敬軒, 戒玉, 母戒月保體, 高命德, 孔惠今, 貴春兩主, 貴?, 金韶同, 金代補兩主, 金莫龍, 父金命柱, 金命立(通政), 金賈夫, 金富益, 父金善民, 爲父母金時鶴刊, 亡父金永南, 金英?, 金天益兩主, 金合+叱同, 金後種, 金召史, 金?, 南齋立, 亡父魯正信, 魯?金, 母論三, 曇淨爲父母, 曇坦, 曇惠爲父母, 父代補保體, 梅春兩主, 明悟, 爲父母明?, 爲父母文遠, 文贊?, 敏悟比丘, 敏海比丘, 密云, 朴善生, 白末生兩主, 法寬比丘, 法日, 母下良, 刻工普彥, 爲母普現刻, 母粉今, 思學, 刊手思屹比丘, 母尙代, 尙?, 双益, 釋機, 釋倫, 釋還, 雪元, 父成得民, 性悟比丘, 成致?, 母小玉, 宋氏奉眞, 順藏, 勝旭(爲父母), 是玉兩主, 父安日生, 安宗命, 愛貞, 父梁大生, 良惠, 衍暹, 靈覺比丘, 母禮眞, 亡母烏金, 吳得信兩主, 吳夢詳, 父吳夢?, 母廷春, 功德刊元淡, 爲父母元悟, 柳戒日兩主, 柳?, 尹祐信, 亡母尹?, 以訥(功德刊,爲師刊), 李得英, 理順, 李儀信, 李氏以春, 李哲石, 李春鶴, 李召史, 母李?, 李氏?, 自花, 小阿只, 亡父鄭日金, 曹景俊, 曹景?, 父趙?男, 進湖比丘, 爲母澄眞, 功德刊處應, 天贊, 天?, 清眼, 清屹, 楚?比丘, 崔己男, 崔得立兩主, 亡父崔萬世, 崔以寬母, 父崔?, 師竺眼比丘, 春伊, 爲父母忠翰, 彌道, 學坦, 韓美業, 亡師海連, 比丘解仁, 幸文, 惠白, 刻工弘性比丘, 弘信比丘, 洪義積, 會機, 懷印, 會仁比丘, 熙行, 母希花, 爲父母?, 爲?, 爲父?, ?, ?秀, 白 + 一 德, 爲亡母?, 比丘?, ?宗比丘, ?宗日, 母?, ?玉兩主, ?雲, 爲母?(148명 이상)</p>
<p>都序</p>	<p>潤聰, 敬日, 瓊花, 戒淨, 敬贊, 廣明, 貴介, 金順伊, 金田伊, 金必建, 朗然, 能信, 檀混, 曇下, 曇悅, 曇欽, 大聰, 德祐, 明月, 文現, 法仁, 普珠, 奉荷, 三允, 尙堅, 釋敬, 善日, 善擇, 雪悟, 雪云, 雪雄, 性宗, 守孟, 勝天, 勝浩, 神益, 安得浩, 愛春, 演熙, 靈云, 玉熙, 元淡刊, 圓悟, 元暉, 唯信, 潤聰, 融信, 應楚, 依惠, 怡順, 怡悅, 李正祿, 印罔, 印寶, 印玄, 一文, 一清, 自玄, 精印, 曹智先, 智雄, 贊英, 天贊, 哲文, 清敏, 春今, 冲翰, 坦益, 太應, 八悟, 平屹, 惠坦, 會機, 會澄(74명 이상)</p>
<p>節要</p>	<p>覺衍, 覺暉, 敬淳, 敬允, 戒梅, 戒森, 戒修, 柱雲, 冠日, 今補, 金尙立, 金龍伊, 金應丁, 德仁, 杜英, 文戒, 朴勝乞, 朴重已, 法令, 法坦, 普文, 奉梅, 思順, 思衍, 尙淳, 尙印, 尙日, 尙熙靈駕, 釋軒, 善下, 善天, 成印, 宋召史, 淳日, 勝暹, 勝衍, 信暉, 愛節靈駕, 梁石碧, 呂行, 英贊, 偉岑, 偉哲, 偉坦, 偉屹, 宥暹, 柳洽, 六行, 怡屹, 怡擇, 印儀, 一淳, 精口, 淨明, 淨稔, 祖惠, 宗悟, 宗洽, 智明, 贊敏, 贊心, 處明, 處允, 最伊, 最欽, 竺彥, 竺海, 爲母春今, 春德, 就默, 坦祐, 學性, 海謹, 海清, 幸禪, 惠行(76명 이상)</p>
<p>禪要</p>	<p>覺信, 功德刻字覺云, 覺花, 敬澄, 戒坦, 孔芑伊, 金日性, 金日和, 金弘民, 曇印, 德花, 明悟, 明俊, 朴戒男, 普彥(刊刻), 普元, 普仁, 思一, 三奇, 徐得石, 釋弘, 成氏惠良, 孫得信, 孫養春, 守元爲母下召史, 勝旭, 神日爲母忠今, 信宗, 信清, 演仁, 連眞, 了元, 雲祐, 偉屹爲母春今, 隱惠, 功刊應清, 義敬, 義均, 李命吉, 自澄, 再叔, 功刊鄭今奉, 鄭善良, 鄭先良, 祖欽, 宗坦, 俊云, 贊玉, 功德刻字處連, 天心, 天贊, 清下, 清屹, 竺默,</p>

	仲敬, 就嚴, 坦學, 太敏, 太英, 太祐, 太欽, 必式, 學訥, 學林, 學澄, 學清, 惠訥, 弘俊, 興寶, 熙熙 (70명 이상)
大慧	覺信, 潤修, 敬倫, 敬敏, 景天, 敬弘, 戒英, 戒清, 戒香, 戒和, 郭正生, 金戒淑, 金愛還, 淡彥, 曇日, 淡澄, 曇現, 大密, 大澄, 大行, 大?, 德訥, 道白, 道安, 道贊伏爲亡母仁生(亡母仁生), 道閑, 杜下, 杜森, 得文靈駕, 萬勒, 目介, 敏惠, 朴稀良, 方勒, 法堅, 普寬, 普林, 思順, 思衍, 思印, 尙淳, 尙熏, 双訥, 雙林, 双旭, 双欽, 徐貴男靈駕, 釋弘, 釋還, 性林, 性澄, 守玄, 順閑, 勝彥, 時下, 信彥, 信一, 信淨, 信哲, 信和, 演詳, 連春, 元機, 元勝, 圓竺, 允潤, 應淳, 應旭, 應元爲母, 應春, 儀淳, 義仁, 依海, 儀行, 印俊, 印暉, 一梅, 一安, 一彥, 日岑, 日?, 自淡, 正寬, 中玄, 智能, 智俊, 智玄, 進寬, 進元, 振元, 贊敏, 處淡, 處倫, 處淳, 處順, 處還, 哲罔, 哲明, 清悅, 最寶, 最日, 崔召史, 竺環, 冲印, 冲熙, 就堅, 就敏, 就悅, 就洽, 快然, 坦下, 坦忍, 坦海, 學寶, 學俊, 學天, 海聖, 幸連, 玄眞, 惠宗, 惠天, 弘遠, 弘允, 熙益, 熙淨 (125명 이상)

소액이긴 하지만 「恩重經」은 1명, 「法華經」은 101명, 「楞嚴經」은 230명, 「金剛經」, 下는 112명, 「默言作法」은 3명, 「起信論」, 下는 15명, 「起信論」, 上은 41명, 「金剛經」, 上은 84명, 「永嘉集」은 148명, 「都序」 74명, 「節要」 76명, 「禪要」 70명, 「大慧」 125명의 승속이 시주하였다. 「栴老行錄」과 「大老行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두 1,080명 이상의 승속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정성이 모여졌으므로 판각불사는 완성될 수 있었다.

「恩重經」의 소액시주는 功德刻手인 戒信만 수록되었고, 緣化秩에 演熙는 粧頭刻手라고 기록되어 있다. 「恩重經」의 발문에 따르면 演熙 스님이 문경 백마산 敲防寺에 있을 때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 스스로 德裕山에 가서 깊은 산중에서 자란 나무를 베고 판각해서 운흥사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연희는 발원하고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삼도부분을 판각하고, 본문은 戒信이 공덕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중 李得英은 「楞嚴經」, 「法華經」, 「永嘉集」의 3종 간행에 시주하였고, 文現은 「楞嚴經」, 「法華經」, 「都序」의 3종 간행에 시주하여 가장 많이 참여한 경우이다. 3종의 불경을 간행하는데 참여한 소액 시주는 2명이며, 2종의 불경을 간행하는데 참여한 소액 시주는 47명이다. 이외 1종의 불경을 판각하는데 참여한 1,031명을 합쳐 1,080명 이상의 승속이 가담하였다. 이들 불경판각과 사찰건립에 보시한 시주는 우리나라 역사상 공공을 위해 물품을 기증한 사람의 선구가 된다.

4.3 緣化僧

불경 판각을 발원하고 이에 동조하여 시주한 신도가 있다고 해도 불경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판각에 필요한 장인이 동원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불경의 권말에는 대개 판각불사에 공헌한 인명록으로 施主秩, 緣化秩,²⁹⁾ 役員秩, 刊記가 수록되어 있다. 연화질과 역원질에 수록된 역할을 더 자세히 보면 板殿掌務, 幹事, 書, 書寫, 格畫員, 校正, 執綱, 直舍, 首僧,³⁰⁾ 書記, 直歲, 三寶,³¹⁾ 三剛,³²⁾ 證明,³³⁾ 持殿,³⁴⁾ 兩位佛尊, 別色掌, 別上房, 主管, 執役掌務, 看役, 浮板, 鍊板, 磨板, 木手, 負木, 供養主,³⁵⁾ 別座,³⁶⁾ 引勸,³⁷⁾ 幹善化士, 化主,³⁸⁾ 化士, 來往,³⁹⁾ 刻手, 刻字 등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書·書寫, 三寶·三剛, 浮板·磨板·木手·負木·鍊板, 化主·勸化·化士, 刻手·刻字는 각각 동일 직임으로 추정되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⁴⁰⁾ 이들에 대해서는 <표 7>, <표 8>

29) 특별불사를 수행하는 臨時的 緣化所에서 불사를 經營하여 施主의 연분으로 求하고 事業을 設計하는 사람의 이름을 記錄한 名簿.

30) 총괄적으로 일을 보는 스님.

31) 知客, 知賓. 사찰에 오고 가는 손님 접대를 담당한 스님이다.

32) 서기와 재무에 해당하는 역승이다.

33) 證明은 證師라고도 하는데 불교의 법회나 의식이 원만히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역할로서 불사 전반을 관장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는다. 증사는 전체적인 일을 감찰하고 사찰의 최고 고승을 초빙한다.

34) 개관불사가 잘 진행되도록 부처님전에 기도하는 스님이다.

35) 飯頭. 절에서 밥을 하는 소임, 삼보에 재물을 시주하는 사람, 시주하기를 권하거나 공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때로는 化主와 같이 쓰인다.

36) 別供, 典座라고도 한다. 불사가 있을 때에 불전에 禮物을 차리는 일, 禮物을 차리는 일을 맡아 부처님이나 스님에게 공양할 반찬과 음식을 만드는 소임을 사람. 화주를 도와 祭物을 만드는 사람.

37) 남에게 施主하기를 勸함.

38) 化士, 幹化, 幹善, 都監, 設辦이라고도 하며, 불경, 불화, 불상 조성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불사를 총괄하여 관장한다. 衆生을 教化 引導하는 阿彌陀佛이나 釋迦如來 같은 聖人을 가리키는 말. 人家에 다니면서 念佛이나 說法을 하고 施主하는 物件을 얻어 절의 糧食을 대는 스님. 스님이나 절에 物件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란 의미도 있다.

39) 선방, 강원, 종무소 등에 방부를 들여 같이 있는 本榜의 상주 대증이 아닌 客僧을 나타내는 말. 伽山佛敎大辭林 3.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8. 424.

<표 9>에서 볼 수 있다.

<표 7> 緣化僧1

板木	書寫	畫員	校正	供養主	執綱	直舍	首僧	書記	直歲
恩重經				學訓			一湖	一文	
法華經									
楞嚴經			信默, 道嚴	學勳, 益振	前執綱: 惠嘗, 法眞, 雙運, 坦修, 太英, 元輝, 神益.	竺默	智淳		
捷徑圖		宗聰		處衍				贊敏	
觀音像				處衍					
金剛經下			敬一	戒眼, 義天	信淨	一清	勝浩	道閑	
默言作法	贊英			戒眼, 玉坦	太英, 惠嘗, 印儀, 坦修, 神益, 信淨, 勝惠		文贊	大賢	守元
起信論下			敬一	戒眼, 玉坦	勝惠	粹元	善日	天贊	
起信論上				海天, 思現, 曇式	信淨	粹元	隱惠	普仁	
金剛經上				思現, 曇式	信淨	粹元	隱惠	普仁	
都序			印罔	曇遠, 玉岑, 玉坦	信淨	守元	隱惠	普仁	
節要	道林		印罔	曇印, 曇遠, 玉岑	信淨	守元	隱惠	普仁	
大慧			印罔	玉坦, 聰眼, 命起	信淨	守元	隱惠	普仁	
禪要	思印		印罔	曇印, 曇遠, 玉岑					
永嘉集				玉坦	智淳		普文	天心	坦祐
堊老行錄						冠日	怡建	粹悟	
募緣記									
事蹟					慈允		呂還	玉軒	普天
大老行錄									

書와 書寫는 「默言作法」의 贊英, 「節要」의 道林, 「禪要」의 思印이 기록되어 있다. 畫員은 「捷徑圖」에 宗聰比丘의 이름이 보이는데 格畫員으로 기록되어

- 40) 佛畫를 그리는 畫僧도 金魚, 畫員, 片手, 出草比丘, 畫師, 副畫師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刻手도 그런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刻手, 首頭刻手, 粧頭刻手 등의 명칭만 알 수 있다. 화승에 관해서는 安貴淑, “朝鮮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研究.” 『미술사연구』 제8집(1994). 63-136. 참조.

있다. 『觀音像』의 간기에는 화공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동년에 같은 판목의 앞뒤에 판각되었으므로 宗聰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校正者는 敬一, 印冑이 주로 활동하였고, 『楞嚴經』을 교정한 信默은 발문도 집필하였다. 供養主는 學訓, 學勳, 處衍, 戒眼, 義天, 玉坦, 海天, 思現, 曇式, 曇遠, 玉岑, 玉坦, 曇印 등이 활동하였다. 고문서에서 인명을 기록할 때 동일인이라도 문자를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여기서 學訓과 學勳은 동일인일 가능성도 있다.

<표 8> 緣化僧2

板 木	三寶	三綱	證明	持殿	兩位 佛殿	別色掌	別上房	主管	執役 掌務	看役	幹事
恩重經		一清, 性圭, 寶日									
法華經											
楞嚴經		明贊		融眼							
捷徑圖		信淨	宗悅	廣明							
觀音像			宗悅								
金剛經下	守孟			廣明							
默言作法	最下				廣明, 楚仁						
起信論下	最下			廣明, 楚仁							
起信論上	釋奇										
金剛經上	釋奇										
都序	釋機			廣明							
節要	怡順			廣明							
大慧	釋還			廣明							
禪要				廣明							
永嘉集	湛彥										
塾老行錄	雙印			戒敏, 太敬					忠式		
募緣記											
事蹟	曇順, 平侃			省熏, 釋聰, 曇現, 釋日, 怡悅		思建	一梅, 清下, ...	天贊			
大老行錄										汝賢	助一

執綱은 信淨이 7종의 서적 간행에서 수행하였고, 이외 勝惠 2종, 智淳 1종, 慈允 1종이다. 『默言作法』과 『楞嚴經』 간행시에는 7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고, 더구나 前執綱까지 동원되었다. 따라서 信淨이 집강을 맡은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直舍는 竺默, 一淸, 粹元, 守元, 冠日이 수행했다. 여기서도 粹元和 守元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 首僧은 一湖, 智淳, 勝浩, 文贊, 善日, 隱惠, 普文, 怡建, 呂還이 담당하였다. 一湖는 『恩重經』 판각처인 敲防寺의 승려이다. 書記는 一文, 贊敏, 道閑, 大賢, 天贊, 普仁, 天心, 粹悟, 玉軒이 활동하였다. 一文도 『恩重經』 판각처인 敲防寺의 승려이다. 直歲는 守元, 坦祐, 普天이 활동하였다.

三寶는 守孟, 最卞, 釋奇, 釋機, 怡順, 釋還, 湛彥, 雙印, 曇順과 平侃이 활동하였다. 여기서 釋奇와 釋機도 동일인일 수 있다. 三剛은 一淸, 性圭, 寶日, 明贊, 信淨이 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恩重經』에는 삼강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始役本寺이면서 판각처인 開寧 白馬山 敲防寺의 삼강은 一淸이고, 판각해서 이치한 운흥사의 삼강은 性圭와 寶日이다. 證明은 宗悅이 활동했고, 持殿은 廣明, 楚仁, 戒敏, 太敬, 省熏, 釋聰, 曇現, 釋日, 怡悅이 활동하였다. 兩位佛尊은 廣明과 楚仁이 활동하였고, 別色掌은 思建이 활동하였다. 執役掌務는 忠式, 看役은 汝賢, 幹事는 助一이 참여하였다. 前和尚도 참여하였는데, 別上房에 一梅 등이 활동하였고, 主管은 天贊이 활동하였다.

引勸은 正信, 學熏과 省熏이 활동하였고, 別座는 尙玄, 天贊, 學熏이 활동하였다. 化主는 學勳, 學熏, 楚仁和 演熙가 활동하였고, 來往은 學熏, 學勳이 활동하였다. 여기서 學勳과 學熏도 동일인일 수 있다. 『楞嚴經』에는 다른 불경에는 수록되지 않은 印經紙 담당과 判事도 기록되어 있다. 인출용의 經紙 마련에 대한 기록은 매우 드문 일로 敬贊이 담당하였다.

浮板은 慈允, 茲允, 演熙가 활동하였는데, 여기서의 慈允과 茲允도 동일인일 수도 있다. 鍊板은 演熙, 最贊, 廣儀, 思祐, 守元和 最淑이 활동하였다. 磨板은 『永嘉集』 간행시에 命喜의 이름만 보인다. 木手는 處衍이 주로 활동하였고, 負木은 玉坦이 활동하였다. 여기에서 浮板, 鍊板, 磨板, 木手, 負木의 정확한 역할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동일서적에서 연판과 목수, 연판과 부판, 연판과 마판

을 나누어 기록한 것으로 보아 연판과 목수, 부판, 마판과는 다른 일로 볼 수 있지만, 목수, 부판, 마판과의 관계를 알 수 없다.

<표 9> 緣化僧3

板木	引勸	經紙	別座	化主,化士	來往	判事	浮板	鍊板	磨板	木手	補添刊	負木
恩重經								演熙				
法華經				學勳, 演熙								
楞嚴經	正信	敬贊	學熏	學熏	學熏	印儀, 融信, 印玄, 依淨, 敬寬.	學熏	演熙				
捷徑圖	學熏			學熏								
觀音像				學熏								
金剛經下			學熏	學熏	學熏			演熙		處衍	德元	
默言作法			尙玄	學熏								
起信論下			尙玄	學熏	學熏			演熙		處衍		
起信論上			尙玄	學熏				演熙		處衍		玉坦
金剛經上			尙玄	學熏						處衍		玉坦
都序			天贊	楚仁	學熏		茲允	最贊				
節要			天贊	楚仁	學熏		茲允	最贊				
大慧			天贊	楚仁			慈允	最贊				
禪要			天贊	楚仁	學熏		茲允	最贊				
永嘉集	省熏		學熏	楚仁				廣儀	命喜			
堊老行錄							演熙					
募緣記												
事蹟								思祐, 守元, 最淑				
大老行錄												

목판본의 품질은 각수의 刻字技術, 인쇄에 알맞은 紙品의 紙質과 책판의 먹물 흡입력을 간파한 인쇄장의 기술 여하에 따라 粗惡이 결정된다. 민간에서는 刻手が 印出匠을 겸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기술은 많은 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인쇄가 잘못되면 정교하게 각자한 글자도 반영될 수 없고, 종이를 파지로 만들게 된다. <표 10>에 보이듯이 운흥사에는 상당히 많은 각수를 동원할 수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金剛經」 하권에는 본문각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상권 각수와 동일할 수 있으므로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楞嚴經」의 책판은 적지않은 155판이므로 많은 각수가 동원되었을 것이나 본문 각수명은 찾지 못하였고, 粧頭刻手만 찾을 수 있었다.

<표 10> 刻手

板 木	粧頭	變相	本 文
恩重經	演熙	有	[戒信]
法華經		有	戒信
楞嚴經	演熙	有	
捷徑圖	[演熙]	有	演熙
觀音像	[演熙]	有	演熙
金剛經下	演熙	無	
默言作法		無	元淡, 信能, 平屹, 演熙
起信論下		無	元淡, 能信, 平屹, 文遠, 俊昌, 演熙
起信論上		無	靈贊, 以訥, 元淡, 順根, 思訖, 能信, 平屹, 弘性, 學贊, 靈擇, 德元, 文遠, 俊昌, 已擇, 演熙
金剛經上		有	覺雲, 朴弘迪, 神日, 靈贊, 雪熏, 以訥, 元淡, 鄭今奉, 順根, 文遠, 普彥, 法行, 思訖, 能信, 弘性, 平屹, 學贊, 靈擇, 德元, 俊昌, 已擇, 演熙
都序		無	信宗, 應清, 演熙, 普彥, 覺雲, 神日, 以訥, 元淡, 處連, 鄭宗漢, 思訖, 順根, 俊昌, 法行, 文遠, 德元, 戒敏, 平屹, 靈擇, 弘性, 學贊, 能信, 楚屹
節要		無	信宗, 學贊, 思訖, 楚屹, 鄭宗漢, 處連, 元淡, 以訥, 神日, 覺雲, 普彥, 尹戒還, 演熙, 應清, 靈擇, 弘性, 戒敏, 德元, 文遠, 順根
大悲		無	信宗, 應清, 演熙, 尹戒還, 普彥, 覺雲, 神日, 呂摠?, 以訥, 元淡, 處連, 敏情, ?悟, 鄭宗漢, 太恬?, 儀?元, 思訖, 能信, 學贊, 俊昌, 靈擇, 弘性, 平屹, 戒敏, 德?元, 文遠, 順根
禪要		無	信宗, 應清, 演熙, 尹戒還, 普彥, 覺雲, 神日, 呂摠?, 以訥, 元淡, 處連, 敏情, ?悟, 鄭宗漢, 太恬?, 儀?元, 思訖, 能信, 學贊, 俊昌, 靈擇, 弘性, 平屹, 戒敏, 德?元, 文遠, 順根
永嘉集	演熙	無	尹戒還, 普彥, 處應, 覺雲, 雪熏, 以訥, 元淡, 思屹, 弘性, 能信, 金時鶴, 法行, 靈擇, 文遠, 德元, 守元, 順根
堊老行錄	演熙	有	演熙, 能信
募緣記		無	
事蹟		無	能信
大老行錄		無	能信

專門刻手로 활동한 각수는 本文刻手와 粧頭刻手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각수는 41명 이상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각수로 5종의 불경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神日과 應淸이다. 6종의 불경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覺雲, 普彥, 俊昌, 學贊이고, 7종의 불경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順根, 靈擇, 思訖, 平屹, 以訥, 弘性, 德元이다. 8종의 불경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文遠이고, 9종의 불경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元淡, 10종의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能信이다. 15종의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演熙로 「恩重經」부터 「埜老行錄」까지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많은 불경을 각수별로 판각한 불경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主要 刻手 板刻 佛經

5종	神日	金剛上, 都序, 節要, 大慧, 禪要.
	應淸	都序, 節要, 大慧, 禪要, 永嘉集.
6종	覺雲	金剛上, 都序, 節要, 大慧, 禪要, 永嘉集.
	普彥	金剛上, 都序, 節要, 大慧, 禪要, 永嘉集.
	俊昌	起信下, 起信上, 金剛上, 都序, 大慧, 禪要.
	學贊	起信上, 金剛上, 都序, 節要, 大慧, 禪要.
7종	順根	起信上, 金剛上, 都序, 節要, 大慧, 禪要, 永嘉集.
	平屹	默言, 起信下, 起信上, 金剛上, 都序, 大慧, 禪要.
	靈擇	起信上, 金剛上, 都序, 節要, 大慧, 禪要, 永嘉集.
	思訖	起信上, 金剛上, 都序, 節要, 大慧, 禪要, 永嘉集.
	以訥	起信上, 金剛上, 都序, 節要, 大慧, 禪要, 永嘉集.
	弘性	起信上, 金剛上, 都序, 節要, 大慧, 禪要, 永嘉集.
	德元	起信上, 金剛上, 都序, 節要, 大慧, 禪要, 永嘉集.
8종	文遠	起信下, 起信上, 金剛上, 都序, 節要, 大慧, 禪要, 永嘉集.
9종	元淡	默言, 起信下, 起信上, 金剛上, 都序, 節要, 大慧, 禪要, 永嘉集.
10종	能信	起信下, 起信上, 金剛上, 都序, 大慧, 禪要, 永嘉集, 埜老, 大老, 事蹟.
15종	演熙	恩重經, 默言, 捷徑圖, 觀音像, 楞嚴, 起信下, 起信上, 金剛下, 金剛上, 都序, 節要, 大慧, 禪要, 永嘉集, 埜老.

이 가운데 信宗은 「大慧」, 「都序」, 「節要」와 「禪要」의 4종 모두에 首頭刻手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首頭⁴¹⁾는 판각활동의 총괄자를 말하는 것인지,

演熙의 경우와 같이 粧頭刻手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信宗이 참여한 4종의 서적에는 변상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판각활동의 총괄자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장두각수는 오로지 演熙만 기록되어 있다. 장두각수는 문자 그대로 권두의 장식을 판각한 각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변상도를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演熙는 『恩重經』, 『楞嚴經』, 『捷徑圖』, 『觀音像』, 『金剛經』下, 『永嘉集』, 『竺老行錄』의 장두각수였다. 『金剛經』의 경우 상권에는 변상도가 있으나, 장두각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하권에는 변상도가 없으나, 演熙를 장두각수로 기록하고 있다. 『永嘉集』에는 변상도가 없으나 장두각수는 연희라고 밝히고 있다. 『法華經』의 경우는 권1만 있으므로 권말에 수록될 시주질과 연화질이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알 수 없다.

變相圖가 있는 불경은 모두 演熙가 판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각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각수이다. 變相圖가 없는 경우에는 본문각수로 참여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은 『恩重經』이며, 최후의 각본은 『竺老行錄』이다. 演熙의 본격적인 활동기간은 현종 9(1668)년부터 숙종 10(1690)년으로 추정된다. 演熙는 가장 많은 서적인 15종의 판각에 참여하고 변상도를 판각하였고, 9종의 판각에 참여한 元淡과 함께 가장 능숙한 각수로 추정된다.

演熙는 생몰년대, 속가의 사정, 출가경위, 승려로서의 수행과정과 사승관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규명이 어렵다. 다만 그는 鶴城 사람으로 늦게 불가에 입문했으며, 자발적으로 간경불사를 발원하고 사재를 털어 여러 불경의 판각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한때 울산지역이 기근과 가뭄으로 극심할 때에 學薰에게 萬善 가운데 弘法에 비할 만한 것이 없고, 百行은 三界八部에 미칠 수 있으므로 재물을 내어 간행할 것을 제의하여 함께 『金剛經』 판각조성 불사금을 전액 성금으로 내놓아 민생을 구제하기도 했다. 두 스님은 標致가 俊邁하고 風節이 淸高해서 名利를 쫓지 않고 弘道의 뜻을 품었고, 舉止를 서로 쫓아 不離하므로 사람들

41) 首頭는 대개 해당 활동을 총괄하는데, 때로는 大行首 또는 大首頭라고 하였다. 따라서 서적 판각에서 판각의 책임자를 首頭刻手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寒山과 拾得에 비유하였다⁴²⁾고 한다. 또한 모친에 대한 효성도 뛰어나 目蓮尊者의 후신이라고도 하였다.⁴³⁾

演熙는 목판인쇄 기술상의 모든 공정에 정통한 바 판목의 재질 판단, 문자는 물론 판화의 판각, 인출에도 두각을 나타내었다. 현종 9(1668)년 演熙 스님이 문경 백마산 敲防寺에 있을 때 모친을 위해 간경불사를 발원해서 스스로 德宥山 깊은 산중에서 자란 나무를 베어 敲防寺의 승려와 함께 『恩重經』을 판각하였다.⁴⁴⁾ 이때 아울러 『法華經』 판각용의 판자도 운흥사로 옮긴 것이다. 현종 10(1669)년 가을에 또 德宥山에 들어가 연관하고 판목을 베에 실어 원적산으로 운반해서 3년 동안 판각한 끝에 『楞嚴經』을 인출하였다.⁴⁵⁾ 이에 권5 말미 연화질에 自費板子開刊裝頭, 권말의 연화질에는 大功德主發願自費板梓鍊板自刊藏頭라고 판각되어 있다.

숙종 4(1678)년 세 번째로 덕유산에 들어가 나무를 베어와서 『金剛經』과 『起信論疏』를 판각하였다.⁴⁶⁾ 숙종 10(1684)년에 간행한 『禪宗永嘉集』은 덕유산에서 가져온 판자로 17명 각자가 분각하였는데, 이때의 板子化主는 學薰, 연관은 廣義, 磨板은 命善이 맡았다.⁴⁷⁾ 演熙와 學薰은 십여년간 같이 판각하였고, 이외에도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四教』, 『四集』, 『傳燈』, 『拈頌』, 『華嚴』, 『十地』 등을 인출해서 보시했다고 한다.⁴⁸⁾ 그러나 다른 곳에서 판각한 기록은 평안도 普賢寺에서 숙종 8(1628)년 간행한 『楞嚴經』의 변상도를 판각한 것과 통도사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安寂庵 범종의 명문과 보살입상을 새긴 것이 확인되었다.⁴⁹⁾

연희가 덕유산에서 가져온 판자로 판각한 서적은 『恩重經』, 『法華經』, 『楞嚴經』, 『金剛經』, 『起信論』, 『永嘉集』이다. 또한 『觀音像』과 『捷徑圖』는 판자 하

42) 『金剛般若波羅蜜經』, 鳩摩羅什(後秦)譯, 己和(朝鮮)說誼. 木版本. [肅宗 7(1681)]. 後跋.

43)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木版本. [顯宗 13(1672)]. 跋文.

44) 『佛說大報父母恩重經』, 鳩摩羅什(後秦)譯. 木版本. [顯宗 9(1668)]. 跋文.

45)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木版本. [顯宗 13(1672)]. 跋文.

46) 『金剛般若波羅蜜經』, 鳩摩羅什(後秦)譯, 己和(朝鮮)說誼. 木版本. [肅宗 7(1681)]. 後跋.

47) 『禪宗永嘉集』, 木版本. [肅宗 10(1684)]. 刊記.

48) 『金剛般若波羅蜜經』, 鳩摩羅什(後秦)譯, 己和(朝鮮)說誼. 木版本. [肅宗 7(1681)]. 後跋.

49) 朴桃花, “雲興寺 刻手 演熙의 板刻 양식,” 『강좌미술사』 26호(2006). 644-645.

나에 양면에 판각했으므로 이때 남은 판자로 판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근에 인출된 운흥사판을 보면 『默言作法』과 四集은 다른 서적에 비해 마멸이 심하다. 『默言作法』을 판각할 때 演熙와 學熏이 참여하였으나 덕유산 판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四集은 信宗이 수두각수로 기록된 바 信宗의 주도로 판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마멸이 심한 것으로 보아 덕유산에서 가져온 판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회는 판각을 위해 좋은 목재를 구하고 성심성의껏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연회는 『法華經』 간행에는 화주, 『恩重經』 간행에는 연판과 장두각수, 『金剛經』과 『起信論』 간행시에는 연판, 『埜老行錄』 간행시에는 부판으로도 활동하였다. 이로 보아 연회는 화주, 연판, 부판, 장두각수, 각수로 활동한 것을 볼 수 있고, 판각의 목재는 주로 덕유산에서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목재인지는 알 수 없다.

당시에 연희스님을 만난 愚潭 丁時翰(1625-1707)이 그의 사찰답사기인 『山中日記』에서 각수승 演熙에 대해 언급한 기록이 있다. 숙종 14(1688)년 5월 22일조 기록에 각수승 연희는 스스로 발원하여 불경을 11년⁵⁰⁾동안 수천판을 하루같이 새겨냈다고 한다. 해뜰 때인 卯時부터 해질 때인 酉時까지 온 종일 각판하였는데, 처음에는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고, 정신이 혼미했으나 열흘이 지나니까 조금 나은 것 같더니, 3일이 더 지나니 차차 평정되고, 석달 지나니까 조금 편안하고, 삼년을 지나니까 평상시 같게 되었다고 한다.⁵¹⁾ 이렇게 판각된 글자에는 각수의 장인정신이 스며있는 것이다.

이외 본문 난의 여백에 기록된 바 공덕각으로 참여한 각수도 많다. 戒信, 能信, 演熙, 元淡, 以訥, 鄭今奉, 處應, 平訖, 順根, 靈贊, 已擇, 學贊, 俊昌, 平屹, 大遠, 弘性, 思屹, 神日, 雪熏, 覺云, 德元, 靈擇, 處連, 應清, 學云, 金時鶴이 공덕각으로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元淡은 『起信論』 下에서는 亡母從禮와 亡父를 위해 功德刻으로 참여하였고, 以訥은 『永嘉集』에서 스승을 위해 공덕각으로 참여하였다.

50) 丁時翰이 글을 쓴 때가 숙종 14(1688)년이므로, 演熙가 粧頭刻手로 『恩重經』의 변상도를 판각한 현종 9(1668)년부터 계산하면 20년이 된다.

51) 丁時翰, 『山中日記』 (서울: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8). 50. 卷下. 戊辰 5月 22日癸巳.

5. 印本의 特徵

운흥사에서 판각한 서적은 四敎(楞嚴經, 起信論疏, 金剛經), 『法華經』 등 대승경전, 四集(大慧, 都序, 禪要, 節要), 선종서적인 『永嘉集』, 僧傳(二老, 暮雲), 儀式書(默言作法), 雲興寺 資料(佛糧畚, 事蹟), 其他(觀音像, 捷徑圖)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러나 戒律에 관한 서적은 물론 많이 통행된 眞言이나 陀羅尼는 판각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순수한 학문적 전통으로 신앙생활을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운흥사에서 판각한 서적 가운데 특징있는 서적은 2종의 僧傳이다. 두 僧傳에 수록된 스님은 碧松智嚴, 慶聖一禪, 慕雲震言과 寶雲道巖이다. 이들 스님은 碧松智嚴의 맥을 이은 芙蓉靈觀-淸虛休靜·浮休善修-碧巖覺性-慕雲震言으로 이어진 碧松系의 승려이다. 따라서 이들 서적 간행의 주체는 碧松스님의 문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흥사의 각수 가운데 『楞嚴經』과 『起信論』의 象鼻에 각수를 짐작할 수 있는 문자나 기호를 남긴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각수의 판각술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문양이 있으나 판독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에 각 서적의 상하 상비에 남아있는 판독할 수 있는 각수를 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象鼻의 刻手表記와 欄外施主

書名	卷次	張次	位置	刻手表記	推定刻手	欄外施主	
楞嚴經	3	1	下象鼻	熙刀	演熙		
		22	下象鼻	熙刀	演熙	德春	
起信論	上	5	5	下象鼻	熙刀	演熙	敏岑
			1	上象鼻	元	元淡	功德元淡刊
			下象鼻	淡	元淡		
		15	下象鼻	平	平屹		
		16	下象鼻	平山	平屹	文學	
		30	下象鼻	元	元淡		
		35	下象鼻	靈贊	靈贊	功刊靈贊	
		37	上象鼻	已	已擇	功刊已擇	
			下象鼻	擇	已擇		
		46	下象鼻	平山	平屹		
		55	下象鼻	信	能信	梅春	

<丑 13> 象鼻에 表記된 刻手와 該當面 欄外施主

<p>① 楞嚴經 권3 장22 版心 演熙</p>	<p>② 楞嚴經 권3 장22 欄外 德春</p>	<p>③ 起信論 卷上 장16 版心 平屹</p>	<p>④ 起信論 卷上 장35 版心 靈贊</p>
<p>⑤ 起信論 卷上 장1 上象鼻 元淡</p>	<p>⑥ 起信論 卷上 장1 下象鼻 元淡</p>	<p>⑦ 起信論 卷上 장1 欄外 元淡</p>	<p>⑧ 起信論 卷上 장37 版心 已擇</p>

<표 12>와 같이 운흥사판의 판심에 각수명을 남긴 각수는 演熙, 元淡, 平屹, 靈贊, 已擇, 能信이다. <표 13>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直刻한 경우는 靈贊④ 밖에 없으며, 상하 상비를 연결해서 읽으면 각수명이 되는 경우는 元淡⑤⑥과 已擇⑧이다. ⑦은 元淡⑥의 소액시주로 功德刻한 元淡이다. 熙刀①의 경우는 『楞嚴經』 緣化秩에 粧頭刻手로 演熙가 수록되어 있고, 또한 변상도의 오른쪽 하단 사천왕상 아래에 熙刀라 새겨져 있으므로 演熙刀로 읽을 수 있다. 이 경우의 소액시주는 德春②이다. 또 외자만 표현한 元은 元淡, 信은 能信으로 추정된다. 각수 중에 元 또는 淡자가 있는 각수는 元淡 밖에 없고, 信은 能信 밖에 없기 때문이다. 平, 平山③은 平屹로 추정되는데, 간혹 平訖로도 썼다. 靈贊과 已擇의 경우는 외자만 쓰면, 靈擇, 學贊과도 혼동될 수 있으므로 두 자 다 새긴 것으로 보인다.

판각기술은 초보각수와 능숙한 각수에 따라 차이가 많다. 演熙, 能信과 元淡의 판각에는 자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일관성과 균형미가 보인다. 그에 비해 한 두 차례 동원된 각수의 자획은 굵기가 일정하지 않고, 균형미가 떨어진다. 특히 演熙가 판각한 『觀音像』은 최근에 인출된 것을 보아도 각선이 유연하고 섬세하여 생동하는 듯하다.

운흥사에서 판각한 판목으로 인출한 최근의 인면을 보면 마멸의 정도에 차이가 보인다. 이는 목재에 따른 것인데 덕유산에서 가져온 판자로 판각한 판목은 상대적으로 마멸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연회가 좋은 목재를 구하고 성심성의껏 판각한 결과인 것이다.

6. 結 言

雲興寺는 조선말에 폐사되었으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고현리 운흥계곡에 있었던 울산 최대의 사찰이었다. 현종년간부터 전성기를 맞이하여 숙종년간까지 15종의 불경과 2종의 판화를 판각하였다. 그러나 고종초에 편찬된 邑誌에 기록되

지 않아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사찰은 폐사되었으나 수장하고 있던 판목은 通度寺에 이관되어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다. 전래되고 있는 판목은 모두 673 판이다. 그러나 이들 책판은 영조 이후의 책판목록에 수록되지는 않았다.

목판으로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판각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우선 인적인 요소로 불경을 간행하고자 하는 發願者와 緣化僧,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施主, 출판에 필요한 능숙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技術者, 이 4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물적인 요소로 판각용의 板木과 인출할 종이[紙] 등 여러 물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시 운흥사에는 이들 조건을 모두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15종의 불경과 2종의 판화를 판각하고 인출할 수 있었다.

發願者와 緣化僧은 서적 권말에 수록된 경우도 있고, 발문에 수록된 경우도 있다. 발원자는 사찰의 스님일 수도 있고, 또는 신도일 수도 있으나 대개 스님이 발원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서적의 발문을 통해보면 다수의 서적 판각에 발원한 스님은 學熏과 演熙였다. 판각에 참여한 緣化僧은 불경에 따라 일률적인 것은 아니나 化主, 三寶, 引勸, 持殿, 板殿掌務, 供養主, 執綱, 幹事, 執役掌務, 看役, 別座, 書記 등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권말에는 시주도 밝히고 있는데, 속인과 스님을 합해 모두 59명으로 집계된다. 대표적 속인 대시주는 金士男, 李終山, 李鶴春 등이다. 이 가운데 李終山은 자신의 명의 외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의로도 시주하였다. 승가의 대시주는 雪眞, 彥明, 靈寬, 天心, 太圭, 學琳 비구 등이다. 이외에도 난외에 소액을 시주한 사람들의 인명이 새겨져 있는데, 모두 1,080명 이상이다.

다양한 기술자도 동원되었는데, 書寫, 畫員, 浮板, 鍊板, 磨板, 木手, 負木, 刻手, 刻字 등이다. 서적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도 동일한 기술을 의미하는 것도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장인은 각수이다. 각수는 모두 41명 이상 동원되었는데, 이 가운데 演熙, 能信과 元淡이 가장 능숙한 각수였다. 元淡은 9종, 能信은 10종의 불경 판각에 참여하였다. 演熙는 덕유산에서 목재를 구해오고, 연판하고, 판각한 각수로 모두 15종의 서적 판각에 참여하였다. 또한 粧頭刻手로도 활동하

였다. 緣化秩이나 跋文에서 粧頭刻手로 언급된 운흥사의 각수는 演熙 밖에 없다. 운흥사의 각수들 가운데 상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이 발견된 것은 演熙, 元淡, 靈贊, 已擇, 平屹, 能信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판각한 기술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운흥사에서는 學熏과 演熙스님이 불경의 판각을 발원하였고, 여러 緣化僧, 李終山을 위시한 대시주와 演熙와 같은 숙련된 각수를 위시한 여러 기술을 보유한 스님이 있어서 많은 불경을 간행할 수 있었다. 특히 學熏과 演熙는 손을 맞잡고 판각사업을 벌여 學熏은 원만하게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선하고, 演熙는 판목을 마련하는 것부터 완간까지의 작업을 하였다. 學熏과 演熙가 연화질에 이름이 올리지 않게 되면서 판각사업은 쇠퇴되다가 결국 단절되었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인출된 불경으로 당시인은 신앙생활을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운흥사에서 판각한 불경 판목은 어느 책판목록에도 수록되지 않았으나 우리의 우리는 그 판목과 인본을 통해 당시의 운흥사의 판각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雲興寺木板資料集』 (昌原: 예맥출판사, 2003).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雲興寺址發掘調查報告書』 (昌原: 예맥출판사, 2003).
- 金戊祚. “慶南地方 佛經冊板調查研究.” 『동아대학원논문집』 v.4 (1980). 5-24.
- 『金敏榮所藏古書目錄』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07).
- 金相溟. “松廣寺 四天王像 發掘資料의 綜合的 研究: 妙法蓮華經玄義·法華文句記의 刻手 研究.” 『書誌學研究』 제30집(2005. 6). 45-59.
- 金相溟.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關한 研究.” 성균관대박사논문, 1990.
- 김수용. “운흥사지考.” 『鄉土史報』 제1집(울산: 1988). 115-120.
- 金佑植. 『蔚山邑誌』. 寫本. [光武 6(1902)].
- 金正浩. 『大東地志』. 影印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6).

- 김창균. “백양사 불화의 불교회화사적 의의.” 『한국불교문화학회춘계학술회의논문집』 (2007. 3). 95-101.
- 金致雨. 壬亂以前 地方刊本の 開板處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16輯 (1998. 12). 35-62.
- 南權熙.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敎書籍에 관한 研究.” 『韓國書誌學論集』 (한국서지학회, 1999).
- 朴桃花. “雲興寺 刻手 演熙의 板刻 양식.” 『강좌미술사』 26號(2006). 637-662.
-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7).
- 손영문. “彫刻僧 應惠派 佛像彫刻의 研究.” 『한국불교문화학회동계학술회의논문집』 (2007. 3). 83-93.
- 孫永文. “彫刻僧 印均派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호(2006). 53-82.
- 安貴淑. “朝鮮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研究.” 『미술사연구』 제 8-9집(1994-1995). 63-136, 153-201.
- 李升默. 『蔚山邑誌』. 木活字本. [光武 6(1902)].
- 李殷希. “雲興寺와 畫師 義謙에 관한 考察.” 『文化財』 제24호(1991) 195-211.
- 前間恭作. 『朝鮮の板本』 (福岡: 松浦書店, 1937).
- 丁時翰. 『山中日記』 (서울: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8).
- 『韓國地理志叢書』. 影印本 (서울: 아세아출판사, 1987).

